





느리나무팡팡

생물학자인 모교 崔在天교수는 「알면 사랑하게 된다」, 미술사학자인 명지대 俞弘濟교수는 「사랑하면 알게 된다」라는 말을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하곤 한다.

나는 어느 쪽이 맞을까 하고 부질없는 고민을 한동안 했었다. 얻은 결론은 둘 다 맞다는 것이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욱 더 알게 된다는 식으로 알기와 사랑하기란 순순환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양재천가에 사는 행운 덕에 도시에서는 드물게 잡초가 거칠게 우거진 둔덕들이 이어지는 산책로를 가끔 거닐게 된다. 걷기 위해 억지로 시작한 산책이 기대감에 부푼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잡초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이다.

야생화라는 멋진 이름의 부류에는 끼워 주지도 않는 냉이, 씀바귀, 질경이, 쇠비름, 망초, 싸리, 아쨌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 소박하게 집 근처 동네 언저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꽃, 나무들을 일년동안 매주, 매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풀과 꽃들이 돋고, 자라고, 시들고 새로 피어나는지 사진으로 담아 시간 장소들을 명기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어 근처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사용할 교재로 제공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양재천 변의 공원화 계획이 그 친구들을 제거해 버리고 잔디를 깔아 축구장 같은 것을 만들어 버릴까봐 염려된다.

영국에서 잠시 살았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국의 시골 전원에 피어나는 풀이름, 꽃이름들을 한없이 나열하는 노래를 배우는 것을 들으면서 좋은 자연교육이라는 생각을 했다.

자연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한 것이고 자연이 파괴되면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가 하는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자연교육 이전에 친구처럼 이름을 기억하고, 모습을 새기고,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알아보면서 정들게 만드는 감성적 교육이 자연 사

랑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金春洙시인의 시구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그가 내가 어느날 그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나에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로 마음에 담기게 되듯이.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 화단에 자라는 풀 포기 하나, 꽃나무 한 그루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모르는 대상을 사랑하고 아끼려고 해 보았자 별 실효가 없다.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인류의 파멸이 올 것이라는 공포심 유발 방식의 홍보보다는 우리의 산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집 주변, 학교 주변의 풀, 꽃과 같은 생물부터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 야생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취미를 가진 어른들도 많

아쨌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 소박하게 집 근처 동네 언저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꽃, 나무들을 일년동안 매주, 매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풀과 꽃들이 돋고, 자라고, 시들고 새로 피어나는지 사진으로 담아 시간 장소들을 명기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어 근처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사용할 교재로 제공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멀리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의 자연(빈약한 대로)에 대한 산 교육이고 자연 사랑을 가르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른들의 취미 생활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거기에 단순히 식물의 사진과 이름만이 아니라 관찰과 촬영과정의 에피소드나 풀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여도 좋을 것이다.

사람은 무엇보다 의미를 소비하는 동물이므로 의미를 통해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고 감동하게 함으로써 서서히 애정도 싹트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본보 논설위원)

## 알기와 사랑하기란



朴明珍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동문칼럼

# 여성의 과학기술계 도전을 기다리며

몇 해 전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산업체에 뿌리박혀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탓인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 49.5%이던 것이 2001년에는 48.8%로, 또 올 1월에는 이보다 더욱 떨어져 47.3%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8년 5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또 대졸 남자(93%)와 비교할 때 격차가 무려 39%로서 OECD 평균(10%)보다 4배 가까이 많다고 한다.

이를 보면 우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아직 요원한 과제로 느껴진다. 21세기가 어떤 세상인가. Digital(정보통신), DNA(생명공학), Design(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지성과 감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분야는 없어 보이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인 증거도 많다.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기술은 우리 여성의 섬세함과 인내력의 산물이다. 「생명공학의 쌀」로 일컬어지는 DNA와 나노(Nanotechnology)의 세계는 현미경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러한 초미세 과학에 여성들이 더 적합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생명공학분야에는 한국계 여성과학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패션업계에서 한복을 세계적인 패션으로 등장시킨 디자이너, 골프의 박세리, 양궁 금메달리스트들은 모두 한국여성이다. 이렇게 엄청난 여성의 잠재력을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근래 여성과학자의 채용목표제 도입이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여교수회」에서 5년 내에 여성교수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채용할당제를 주장했다. 대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온건한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과학자, 교수 등의 신규

임용시 기본자격요건(박사학위, 논문, 연구업적 등)을 갖춘 인력층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학부과정을 마치고는 결혼과 함께 가정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신랑, 좋은 가문에 출가하기 위한 것이라니... 그래서 「여자 팔자 뒤웅박」은 아직도 유효하다.

여성 문제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원이 풍부하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좀더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60년대부터 「차별수정계획(Affirmative Action)」이라는 여성우대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고급인력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채용대상자가 비슷한 자격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남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출산과 육아의 문제도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장애 요인이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노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장 내에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옛날 여자들은 奉祭祀 接賓客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했지만 풍속도 시류에 따라 변해야 한다. 올 추석을 보내면서 아직도 여자들의 명절 가사노동은 조선시대의 며느리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여성을 괘시하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실사구시의 기풍을 진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여성인력이 필요하며 성차별이 가장 적은 동네이다. 실력 있는 많은 여성들의 도전을 기다린다.



卜成海  
(66년 農大卒)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장

## 주요목차

▲건강을 지킵시다.....3면

辛容銀 강남동물병원장

▲추억의 창.....3면

李純炯 모교 의대 명예교수

▲지부 순례.....8면

캐나다 온타리오 지부

▲기과 순례.....8면

기계동문회

▲동문을 찾아서.....9면

姜哲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화제의 동문.....10면

동구권 출신 첫 한국어 박사 「안나」

▲동문 기업 탐방.....11면

한세실업(주)

▲서울대 가족.....12면

李鍾信 치과의원장

▲SNUA OPINION LEADER.....15면

韓武榮 모교 공대 교수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22면

崔洙慶(權世元동문 부인)

## 건강을 지킵시다

## 애완동물의 예방접종은 필수

최근 우리의 생활환경에서는 아주 쉽게 애완동물을 접할 수 있다. 단순히 사육되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애완동물의 수는 약 3백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종류도 많이 다양해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애원견으로서, 약 2백5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켜야할 몇 가지 필수 사항이 있다. 이것이 지켜질 때만이 사람과 애완동물 서로의 건강이 보장되며, 동시에 서로의 건강만이 가정내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필수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방접종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광견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고 애완동물이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기생충구제이다. 애완동물의 기생충 중에서 일부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 구충제의 발달로 인해 내·외부기생충 및 심장사상충까지도 한꺼번에 구제해주는 약제도 개발되어 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애완동물의 피모를 관리해줘야 한다. 털이 있는 동물들은 주기적으로



辛 容 銀(96년 獸醫大卒)  
강남동물병원장

빗질을 해줘야 피부가 건강해지고 털이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털이 엉켜있거나 지저분한 환경, 적절하지 못한 목욕 등으로 인해라도 피부병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곰팡이성 피부염의 경우는 사람에게도 피부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네 번째로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쉬운 일로는 이물섭취와 중독, 감전사고 등이 있다. 작은 애완동물이 닭뼈, 갈비뼈, 자두씨, 바늘이나 핀, 동전 등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 위장관 손상으로 인해 외과적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애완동물과 생활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았다.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의사전달능력이 부족하고, 아파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질병의 조기발견이 어려워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시 예방이라 할 것이다.

(연락처 : 514-7582)

## 추억의窓

## 정신과 병동 옆 음대생과의 로맨스

## 실습 때문에 놓친 4·19혁명 선봉장

李純炯(62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

지금은 콘크리트로 뒤덮여 사막화돼 버렸지만 연건동 의과대학 합춘관은 50년대만 해도 제법 숲이 우거진 환자들의 요양 장소였다. 그 합춘동산의 한가운데에는 격리된 정신병동이 있었고, 3학년이었던 우리는 이곳에서 정신의학 임상실습을 했었다.

때마침 화창한 봄날을 맞아 우리 실습조(李氏 4인방)는 수업 도중에 이 병동 앞에서 명랑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게 되었다. 이 사진을 찍기 직전, 실습중에 교수님의 고문(?)에 시달리느라 모두 비참한 우겨지상이었음이 분명하다. 「명교수 명강의」로 유명하셨던 明桂完교수가 우리를 주로 지도해 주셨는데, 「정신의학」은 육체의 병을 진료하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정신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라 의대생들의 흥미와 인기를 독차지하기에 충분했다.

이들테면 「疑夫症」을 갖고 있는 한 환자가 남편이 귀가할 때 미장원을 향해 모자를 잠깐 벗는 것은 미장원 여주인과 만나자는 신호이고, 자기 남편과 미장원 여주인 사이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다고(있지도 않은 사실) 믿고 있다는 재미있는 설명을 한 다음 별안간 우리들 중 한 사람을 향해 「자네, 이런 증상을 무어라 하나」라고 질문을 하실 때는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아야 했다. 혹시라도 「이런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나」라는 다음 질문이 나에게 떨어질까 전전긍긍 마음을 조이면서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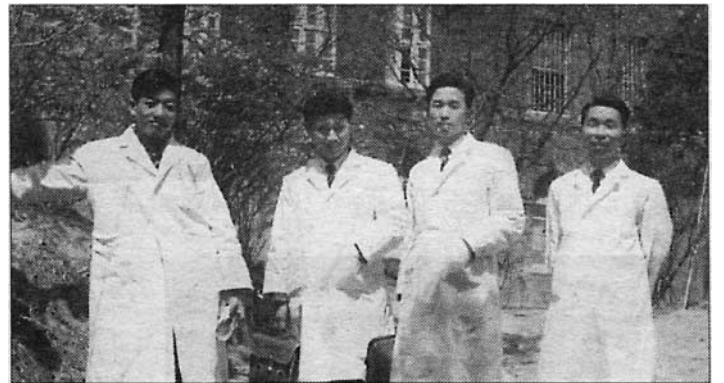
우리 학년이 동송동 문리과 대학 의예과에서 의과대학으로 진학한 1958년에는 이미 정신과 병동 옆에 음대대학이 입주한 상태였지만, 우리 선배들은 의대 내에 음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친 사람들(정신과 입원환자)로부터 「정신요양에 지장을 준다」는

연판장까지 얻어냈다는 무용담을 읊어내기도 했다. 그렇게 반대하던 선배들과 어여쁜 음대 여학생들 사이에 로맨스가 생겨 결혼까지 끝난 한 커피도 여럿 생겨난 것을 보면 轉禍爲福이라고나 할까!

며칠 후 우리 실습조는 본교 실습을 마치고 청량리뇌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千秋의恨이 될 줄이야. 청량리뇌병원에서 본교로 돌아오니 강의실이 텅 비어 있었다. 동급생들은 흰 가운을 입은 채 몽땅 경주대로 달려나간 것이었다.

결국 우리 실습조는 너무 공부에 충실(?)했던 까닭에 4·19혁명의 선봉장이 될 千載一遇의 기회를 잃고 만 것이다. 이때 우리가 참여했다면 살았든, 죽었든 영웅을 자처하게 되었을 것인데 말이다. 그러나 얻은 것도 있다. 1960년 4월에 찍은 이 사진 왼쪽 끝의 李相璘동문은 故 李正基동문(좌로부터 세 번째)의 누이동생과 결혼해 처남·매부지간이 되었고, 李元魯동문(좌로부터 두 번째)은 계속 분발, 미국글지의 심장내과과가 되어 금의환향하여 현재 인제대 일산백병원 원장이자 시집을 여럿 출판한 시인이 되었다.

네 사람 가운데 진돗개같이 오로지 나라와 대학만을 지키고 있던 필자는 집 잘 지킨 공로 탓인지 의대 확장까지 지내고 지난 2월 28일 무사히 정년퇴임을 했다.



좌로부터 李相璘·李元魯·李正基·필자.

# 정기총회 이모저모



동문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회함.



재미동창회 吳仁錫 명예회장(中)이 관악대상 참여상을 수상함.



제일제당그룹 孫京植 회장(中)이 관악대상 협력상을 수상함.



모교 수의대 黃禹錫 교수(中)가 관악대상 영광상을 수상함.



金在淳 회장의 인사말씀.



李基俊 총장의 인사말씀.



權舜赫 전임 총장의 건배제의.



朴英俊 감사의 동창회 감사보고.



제19대 회장  
에 林光洙 수석  
부 회장(右)이  
선출됨.



경원대 李吉女  
총장(右)이 신임  
林 회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함.



鮮于仲皓 전임  
총장의 신임회원  
환영사, 全宰民  
동문의 답사.



모교 사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꽃살풀이 북춤」 축하공연.



전문 타악기 연주자 「뿌리패」의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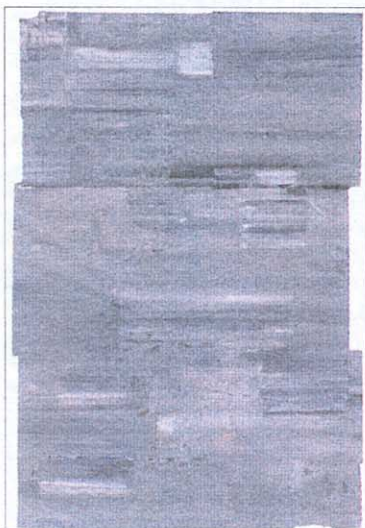


정기총회 폐회 후.

## 미술작품 朴利善 作

### <작가약력>

- △ 76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 90~2002년 개인전 6회
- △ 84~85년 동이전
- △ 86~92년 한국회화전
- △ 87년 서울현대 미술제, 33인의 초대전
- △ 88년 한국현대작가 12인전, 문스터시 초대  
「동과 서의 만남」
- △ 91년 현대미술 한국성을 향한 제언전
- △ 93년 한중미술전, 유심회전, 새미전
- △ 2000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국베트남평화전시회
- △ 현재 전업작가, 미술협회·새미회·비상전 회원



「不二」, 한지, 수간채색, 아크릴, 142×210cm 2002

## 제34회 정기총회

## 제19대 회장에 林光洙동문 선출

吳仁錫·孫京植·黃禹錫동문 「관악대상」 수상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3월 1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2002년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在淳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등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高柄翹·權彞赫·趙完圭·鮮于仲皓 전임 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鄭正佑대학원장 등 보직교수 및 동문 4백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상이 걱정·상심되는 일이 많아 세상이 다 음산하게 보일 때도 없지 않지만, 아무쪼록 새로운 활력을 얻어 모교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동창회 일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모교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세계 일류대학의 제도, 전략,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세계 40위권 수준의 대학을 목표로 개혁사업을 추진해 국제 무대에 진입하려 한다』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 부문에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모교와 후진을 위한 100만불 기금위원회 위원장) 명예회장, 협력 부문에 제일제당그룹 孫京植(61년 法大卒·모교 발전 후원회 회장) 회장, 영광 부문에 모교 수의대 黃禹錫(77년 獸醫大卒)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소감 및 프로필 6면 참조)

본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지

난 1월말까지 20명의 후보자 접수를 받아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안전심을 통해 제19대 신입 회장에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方孝宣감사의 후임으로 朱成民(73년 法大卒·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동문을 새로 선임하고 朴英俊감사를 재선임했다.

한편 부회장단 인선은 신입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전임 金在淳회장을 명예회장으로, 李聖秀(52년 師大卒·정책평가연구회장)·鄭元植(54년 師大卒·前국무총리)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林회장은 취임사에서 『개인적으로는 벅찬 감격과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동시에 동문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져나가는 한편, 모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한 후 『20만 동문들과 함께 우리 동창회를 명실상부한 모교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끔 건강하게 운영하는 한편 인적, 물적 자산을 배가하여 실력을 갖추고 동창회 사업도 그 명분이 뚜렷한 부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 요지 참조)

金在淳명예회장은 퇴임 인사를 통해 『인생살이 본질은 고뇌와 웃음을 배우는 것이고 모든 사물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 뒤 『지난 8년간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동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權彞赫 전임 총장의 건배사로 시작된 만찬 중에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예·결산 요약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했으며, 만찬이 끝난 후 2001년도 결산 심의와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鮮于仲皓 전임 총장은 신입회원 환영사에서 『모교를 졸업한 것을 자랑이자 명예로 생각해야 하며, 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全幸民동문이 답사를 통해 『동문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서울대인의 위상을 지켜 나가고, 우리 뒤를 이을 후배들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하고 『서울대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악대상 수상자와 신입 회장 선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 사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李愛珠(69년 師大卒·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예능보유자)교수가 기획한 「꽃살풀이 북춤」을 선사해 참석한 동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문 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뿌리패」의 흥겨운 공연을 끝으로 정기총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작년에 이어 이날 총회에서도 두리비전(사장 李璉璉·43기 AMP·13기 AIP)의 기술진이 행사 중계와 영상물 상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신포니에타단원들이 흥겨운 음악을 선사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만보계)을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했다. (變)

##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신임 林光洙회장 취임사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19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벅찬 감격과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문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져나가는 한편, 모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학도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간접자본 즉 SOC와 산업 인프라(Infra) 건설에 일생을 바쳐온 경영인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대 동창회장으로서 또 본회 수석 부회장으로서의 직분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초심을 간직하면서 누구 못지 않게 정열과 용기를 가지고 땀 준비가 되어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사회 인프라를 개발·건설해온 나름대로의 경영 경험과 안목으로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깔고, 서울대인을 휴먼리소스(Human Resource)화하여 모교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유용한 네트워크(Network)를 작동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20만 동문들과 함께 우리 동창회를 명실상부한 모교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끔 건강하게 운영하는 한편 인적, 물적 자산을 배가하여 실력을 갖추고 동창회 사업도 그 명분이 뚜렷한 부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식견 높은 여러 동문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채워 주시리라 굳게 믿고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아래 동창회장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 그리고 영광이라는 동창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살려, 서울대인 모두가 뜨거운 가슴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당면한 과제로서는, 무엇보다도 장학사업 확대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장학금을 대폭 유치하여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교의 절실한 요망과 동문들의 염원을 충분히 수용하여 20만 서울대 동문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동창회관 신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동창회관 신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모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계 및 입지선정 등에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교가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각계 동문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컨텐츠(Contents)를 가꾸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재미 서울대동창회가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00만불 모금 운동을 벌여, 이역만리 미주 지역 동문들의 출연과 약정, 유증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군림하는 엘리트(Elite)가 아니라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엘리트(Elite)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에 있는 동문들도 이와 같은 기운에 동참하여 배움과 나눔을 함께 하는 작은 실천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

모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과연 조국 앞에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자신의 것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다함께 뜻과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합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우리 나라가 산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지난 3월 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을 수상한 3명의 동문에 대한 공적사항과 수상소감을 소개한다.

### 참여 부문 재미동창회 吳仁錫 명예회장

1962년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Philip Investment Co. Ltd. 회장을 맡고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재미동창회 제4대 및 제5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지역동창회를 방문하여 재미 동문의 동창회 참여도 증가에 공헌, 그 과정에서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가 창설되는데 산파역할을 하였고, 전 미주 19개 지역 동창회와 미주 총동창회의 관계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회」 창설에 이바지했으며, 이를 통하여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발간과 재미동창회 활성화에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이룩했다.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00만불 기금 위원회 창설에 대한 발안을 하였고, 그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총동창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조세 법률에 합당한 조직으로 등록함으로써 모교지원 기금의 모금과 사용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현재 재미 총동창회의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임중이며 모교를 위한 재미 총동창회의 기금 증가 및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吳명예회장은 수상소감에서 「재미동창회 발전에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와 고무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미동창회 현황소개를 통해 「재미 등록동문 수는 7천여 명에 달하며, 19개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4개 지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시카고에서 평의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00년 평의원회의 이후 모교와 후진을 위한 1백만 달러 기금 모금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5만불을 모금했으며, 그 중 40만불은 모교 발전과 동창회를 위해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자기 모교에 대한 기부문화가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고, 이미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에 유증하실 것을 약속하신 동문들은 물론,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신 동문도 계셔서 기금의 진로가 장기적이고 견고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 협력 부문

### 제일제당그룹 孫京植 회장

1961년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모교 발전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AMP) 동창회장」을 맡아 오면서 AMP대상 및 자랑스런 교수상을 제정 시행해 왔으며 정보통신산업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로 정보통신포럼을 창설해 격월제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발전후원회장으로서 지난 2000년 11월 서울대에 22여억원을 출연, 언어교육원을 증축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모교의 경쟁력 확보에 일조했다.

孫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언젠가 국내 유명 영화제작자와 만난 적이 있는데 영화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마찬가지로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과 돈도 필요하지만 많은 훌륭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미력이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영광 부문

### 모교 수의학과 黃禹錫 교수

1977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수정란이식학회 부회장, 한국임상수의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국내 BT(생명공학)분야의 선두주자로서 1993년 11월 국내 최초 시험관 송아지를 탄생시켰으며, 1999년 고능력 젖소의 자궁세포를 이용한 복제젖소 영롱이와 고능력 한우의 귀세포 핵을 이용한 복제 한우 진이를 출생시킴으로써 국내 생명공학 수준을 세계 선진대열에 올려 놓았다.

최근 형질전환 복제 돼지를 생산하는데 실패했다는 黃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동창회에서 준 영광상으로 하늘이 감동해 단비까지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학도의 길을 걸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영광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처럼 과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준 국가와 국민에게 실험으로써 영광을 바치겠다」며 「과학도로서, 교수로서, 서울대가 배출한 자식으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당장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악대상 등 수상 동문 축하연

林회장 “인류 사회의 영광으로 기록되길”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20일 신라호텔 영빈관 에머랄드룸에서 孫京植·吳仁錫·黃禹錫동문 등 관악대상 수상자, 卞柱仙동문 등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와 가족을 초청, 축하연을 개최했다.

林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다함께 뜻과 힘을 모아 새로운 동창회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구축해 가는 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역할과 성원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하고 『「관악대상」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이 단순히 서울대인만의 상으로서 빛날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에 정신과 문화의 자긍심과 영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도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모교 李基俊총장과 아주대 吳明총장의 축하인사에 이어 金在

淳명예회장에게 동창회장으로 봉직한 지난 8년간의 발자취가 담긴 앨범을 봉정했다.

이어 본회 白文基·李聖秀·鄭元植고문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경원대 임정근 학장이 축가로 「목련화」 「오 솔레미오」 등을 선사했다.

金在淳명예회장의 건배사로 시작된 만찬에서 참석자 소개와 수상자들의 간단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날 축하모임에는 白文基·李聖秀·鄭元植고문,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 모교 趙完圭 전임 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 부총장, 鄭正佑대학원장, 李長茂공대 학장, 金東熙법대 학장, 李興植수대 학장, 鄭哲圭·尹烜玉·韓斗鎭·孫一根·徐廷和·金哲洙·李龍兎·朴世熙·金丁龍·孔大植·金讚淑·孫京植·崔秉烈·吳仁錫·許鎮奎·洪性大·卞柱仙·吳明·朴英俊·朴泳俊·李世震·金仁圭·任志淳·李平浩·裴永洙·郭守根·黃禹錫·鄭八道·金秉順·李喜祥동문 등이 부부동반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 기독교동문회

### 신임 회장에 徐廷華동문 선출



모교 기독교동문회(회장 金在浩)는 지난 3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를 개

최했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예배에서 金相福(63년 文理大卒·할렐루야교회 목사)동문은 설교를 통해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배들을 뒷받침하고 격려해주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朴仁珪(38년 京城法專卒·세계평신도연맹 총재)·張河龜(46년 京城大卒·종

로서적센터 고문)·吳基亨(47년 文理大卒·연세대 명예교수)·李世中(57년 法大卒·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동문이 제1회 「자랑스런 서울대 기독교인상」을 수상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金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에 徐廷華(70년 師大卒·홍익대 교수)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과 감사는 연임됐다. 또 전임 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그 동안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임 徐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앞으로 동문회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모교를 위한 역할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 관악골프회

### 새 회장에 徐廷和동문 선임

간사장에는 朴英俊동문



徐廷和 회장



朴英俊 간사장

관악골프회(회장 崔主鎬)는 지난 3월 21일 뉴코리아CC에서 제107차 골프모임을 개최했다.

동창회 전·현직 임원과 임회 희망자들로 구성된 관악골프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뉴코리아CC에서 정례모임을 개최해왔다.

이날 모임에서 崔主鎬회장의 후임으로 徐廷和(55년 法大卒·

국회의원)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간사장에 朴英俊(66년 商大卒)동문을 재선임했다.

신임 徐회장은 『앞으로도 이 모임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모교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 상임이사회

### 동창회 예산·관악회 예결산 통과



본회는 지난 3월 15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C홀에서 동창회 제142차·관악회 제8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상임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 2002년 예산안과 재단법인 관악회 2001

년 결산을 심의, 의결했으며 동창회 2001년 결산을 심의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동창회 회칙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신임 회장과 감사 및 고문, 명예회장 추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동창회·관악회 결산공고 10~11면 하단 참조> <變>



캐나다 온타리오 지부

## 74년 창립...단과대학 돌아가며 회장 맡아

## 장애인 후원·불우아동 돕기 등 사회봉사 실천

글 : 柳會子(63년 音大卒)회장

즐기며 유쾌한 하루를 보낸다. 9월에는 골프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최근에는 여성동문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더욱 의미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柳會子 회장

북한문화정책을 쓰고 있는 캐나다, 그 중에서도 인구의 반 이상이 세계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된 온타리오의 토론토는 문화와 경제 활동에서 캐나다를 대표할만한 가장 큰 도시이다.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은 프랑스 문화가 산재해 있는 반면 토론토는 영국계 캐나다의 최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온타리오호 북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토론토는 오대호 水運의 요지이자 湖港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시의 남쪽 끝에 있

는 호반에서는 1912년부터 매년 6월, 캐나다 정부의 후원으로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온타리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이는 온타리오호에서 나이아가라 절벽에 이르는 좁은 저지와 그 절벽에서 아리아호에 이르는 넓은 대지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이아가라강과 폭포를 이용한 수력은 온타리오 남서부 일대에 공급된다.

1968년부터 이곳 온타리오 지역에 이민온 한국인의 수는 현재 7만명에 이르며, 최근 2~3년 사이에는 언어 연수차 유학을 온 학생들로 코리아타운의 상가들이 예전과는 달리 붐비는 경향을



2002년 신년파티에서 음악대학이 동창회운영을 맡게 됐다.

볼 수 있다.

1974년 鄭用昇(62년 文理大卒)동문을 비롯한 몇몇 동문이 주축이 되어 첫 모임을 가졌으며, 28년이 지난 지금 동창회 회원 수는 3백50여 명에 이른다. 초기에는 뜻있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동창회가 운영되다가 최근 「12개의 단과대학이 돌아가며 동창회 운영을 주관한다」라는 회칙이 통과되면서, 현재 음악대학 동문들이 두 번째 주자로 동창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온타리오 지부는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역 동문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의 대표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를 5월에 가지고 있으며, 동문들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공원이 많아 7월이 되면 동문 가족들과 함께 야유회를 개최하는데, 평균 1백25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다.

이를 주관하는 단과대학은 갈비구이 등을 준비해 점심을 대접하며, 오후에는 온 가족이 체육대회 및 다채로운 게임을

세 번째 모임은 신년 파티 겸 회장단의 인수 인계를 겸하는 댄스파티이다. 각 단과대학에서 연습한 장기자랑으로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며, 댄스파티 중간에는 여러 기관과 동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후원한 경품으로 푸짐한 상품을 나눠주기도 한다.

한편 동창회의 일년 살림은 회비납부와 동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 특히 골프대회와 신년 댄스파티는 티켓 판매로 자체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모금된 회비중 많은 부분을 모교의 발전과 토론토 지역사회에서 활약중인 장학재단, 장애인모임, 불우아동 돕기 후원회, 여성회, 심장병 어린이 후원회 등에 작으나마 동문들의 사랑을 나눠줄 계획이다.

이는 명실공히 온타리오 지부 동창회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하겠다는 회칙을 실천해 보려는 뜻이다.



기계동문회

## 기금 3억 조성...매년 1천만원 모교 지원

## 등산·골프·바둑·축구·스키 등 특별활동 다양

글 : 禹仁性(62년 工大卒)회장



禹仁性 회장

및 기계항공공학부의 졸업생을 포함해 현재 3천5백여 명에 이르는 매머드 동창회로 성장했다.

1941년 경성고등공업학교 1회로 졸업한 선배부터 올해 갓 졸업한 56회 새내기 동문에 이르기까지 60년에 걸친 연령 분포를 갖고 있는 기계동문회는 세월을 뛰어넘어 단합된 마음과 잘 짜여진 조직으로 가족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8년 이후, 金善弘(55년卒)·廉弘周(57년卒)·張翼龍(58년卒)·崔相弘(58년卒)·金讚煜(59년卒)·孔大植(60년卒)·朴德七(61년卒)동문 등이 회장을 역임하며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뒤를 이어 필자가 작년 10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기계동문회는 회장을 역임했던 여러 명의 고문과 30명이 넘는 부회장을

필두로 10명의 상임간사, 간사장, 부간사장, 1백70여 명의 이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기별간사를 두어 동문회와의 연계를 탄탄히 하고 있다.

매년 1월 개최하고 있는 신년교례회는 그간 탄생한 수십 명의 부자(父子) 동문들과 특별히 올해에는 화환을 증정한 高源鎬(48년卒)·金孝經(48년卒)동문 등과 같은 원로 선배동문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격려로 동창회 활성화에 큰 밑받침이 되고 있다.

또한 체육대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이때는 동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참여해 등산·축구 등으로 친목을 다지는 한편 흥겨운 오락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밖에 큰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5·9·12월에는 상임간사회를, 9월과 12월에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3월 15일 林光洙(52년卒)고문이 제19대 서울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이는 기계동문회의 자랑이며, 그간의 동문회 활동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모든 동문들이 기대하고 있다.

기계동문회의 자랑이자 가장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사는 바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특별활동 모임이다. 1년에 6번 개최되는 등산

및 골프대회, 4회에 걸쳐 치러지는 바둑대회, 1년에 두 번 가지는 테니스대회와 3번씩 펼쳐지는 축구대회는 뜻이 맞는 동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동문회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작년 겨울에는 스키모임을 신설해 사계절 내내 친목과 건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됐다.

동호회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작년 10월 21일 춘천에서 개최된 조선일보 주최 마라톤대회에서 1965년 입학동기 9명이 참가, 전원이 10km코스를 완주하며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동호회 모임뿐만 아니라 동문회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식지를 4·8·12월에 발행, 동문들의 이사·승진 등 변동사항과 각종 모임 광고, 행사 후 보고, 모교소식 등을 소개한 글을 동문 전원에게 개별 우송하고 있다. 또 동문회 홈페이지(<http://gong.snu.ac.kr/~mechdong>)를 개설해 쉽게

동문회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단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계동문회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벤처창업지원 분과를 만들어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벤처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분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동문회에는 약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金榮經(56년卒)동문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많은 동문들이 모금에 참여했다. 이 기금으로는 매년 모교에 1천만원의 지원금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끝으로 모교 신입생들이 공학과 같이 어려운 공부를 요구하는 전문분야를 기피하는 요즈음, 우리 기계동문회 동문들은 「Engineering」 본류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공학 발전을 위해 후배들을 이끌어주며, 모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다는 목표로 오늘도 새로운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2년 신년교례회.



부패방지위원회 姜哲圭위원장

## “용감한 신고정신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姜哲圭(68년 商大卒)동문이 선임됐다. 이에 姜동문을 만나 최근 근황과 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을 들어보았다.

—위원장을 맡으신지 두 달 정도 지나셨는데 소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이 부패척결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큰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울 따름입니다. 우선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리도록 기초를 다져놓아 후손들에게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두 달 사이에 신고 접수가 7백86건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상담만 해도 천 건이 넘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내부의 비리나 부패를 신고하면 이를 접수 처리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철저한 신고자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신고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기관에 신고자의 이름이 알려졌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시키며 당사자가 전직을 원한다면 희망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줍니다.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이 기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징계를 할 권한을 지니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상제도가 도입됐는데, 신고에 의



해 국가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국고 절감액수에 따라 2억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부패나 비리 발생의 원인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가를 연구하는 기구를 위원회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그 실태 점검까지 하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부패방지위원회는 3부에서 추천해 임명된 9명의 위원들과 이들을 돕는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이들 9명의 위원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3명, 입법부에서는 여야 3당에 1명씩 추천한 3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이들을 보좌하는 1백39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며, 시민단체대표가 각 부처에서 지원한 공직자 중에서 엄선해 직원을 뽑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

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2000년 4월 제2기 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아 약 2년 동안 활동했죠.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은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성장 과정 당시에 만들어진 규제나 제도들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던 집단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

익집단들의 반발로 인해 규제나 제도를 개혁하고 고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때 알았어요』

—앞으로 계획은.

『먼저 위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패 취약분야에 우선 순위를 뒤 그 순위에 따라 취약분야의 업무 흐름도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도와 규정, 관행에 대한 개선방향을 내용을 계획합니다. 이와 함께 「청렴성 그룹 발굴확대」라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청렴성 그룹」이란 청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 청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지원, 확산시킬 것입니다.』

또한 3년의 임기 동안 네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죠. 비리가 있어 신고를 받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직접 위원회가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하게 된다면 다시 상급법원에 재정 신청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용감한 신고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신고자의 보호를 철저하게 해 우리 사회에 양심선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개혁을 통해 부패가 발 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권위주의 시대에 맞는 낡은 것이 많습니다. 이를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새로운 선진적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깨끗하고 맑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문 선후배에게 한 말씀.

『우리 동문들 대부분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부패척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부패수준은 40위권입니다. 이 수준을 적어도 10위권까지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그 점을 인식해 부패수준이 낮아지도록 각 부문에서 노력해 우리 후손들에게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姜哲圭위원장은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동향분석실장·산업정책실장,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서울시립대 교수·산업경영연구소장·교무처장, 신자유포럼회장,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亨)

## 안나 이자벨라 파라돗스카 동문

## 동구권 출신 첫 한국어 박사

“이제는 서예·거문고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 나라 사람들이 투자하는 노력은 참으로 크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을 쏟아 붓는 양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

여기 폴란드인으로서 한국어에 열정을 쏟고 있는 안나 이자벨라 파라돗스카(02년 大學院卒) 동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가 화제가 되는 데에는 폴란드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배경을 제외한다면 파라돗스카동문은 모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평범한 외국인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80년대 이전, 여러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한국어를 정식 교과과정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이념의 시대를 지나 90년대에는 우리 나라 언어와 문화, 상품들이 동유

럽 여러 국가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 2월 26일, 이들 국가 중 폴란드인이 모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해 「폴란드인의 한국어 모음의 발음과 청취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첫 문학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이는 폴란드어와 한국어의 모음체계를 비교하고 폴란드인이 한국어 발음에서 겪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가 처음 우리 나라 말을 접하게 된 것은 90년 바르샤바대학에서였다. 이곳에서 초빙교수로 있던 모교 李炫馥(現언어학과 명예교수)교수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 그가 한국어석사 학위를 따게 되고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도 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것도 모두 李교수의 도움 때문이었다. 한국인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李교수를 꼽을 정도로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이다.

1995년 우리 나라 정부의 초청으로 온 그는 이

듬해 모교 박사과정에 등록해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다. 한국생활을 시작할 당시 언어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통 외국인들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물건을 구입할 때나 길을 물을 때, 혹은 새로운 한국학생들을 접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많은 한국인들은 영어로 말하고 대답했다. 이 때문에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던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부분의 이곳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면 영어연습 상대로 생각

하는 것 같다」며 첫 유학생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흔히 외국인들이 힘들다고 하는 우리 나라 말의 존재는 폴란드어에도 있어서 어렵진 않았으나 호칭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음성학적으로 발음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가 모음과 자음을 구별할 때 유성과 무성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들이 폴란드어와 많이 달라 흥미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고.

그는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물론 휴일이라는 것은 없었고 시간이 나면 피로를 풀기 위해 잠자기 바빴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었다. 논문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 3백만원과 논문파일도 담긴 컴퓨터까지 도난당했다. 이 때문에 고되고 힘들었던 논문 작업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마저 나빠졌지만 그래도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다. 그의 논문을 수정하느라 밤새워 도와준 친구들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친구는 폴란드나 이곳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서나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은 이곳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점은 한국 사람들이 친구를 사귄 때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폴란드에서는 10년 정도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정도로 서로의 나이는 상관하지 않아요」

논문을 마친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쉬고 싶다고 말한다. 2년 동안 논문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해 그 동안 관심이 많았던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서 거문고와 서예를 배울 예정이라고. 현재 이론적인 것을 먼저 알고 실습에 들어가기 위해 우선 책으로만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금 모교 사범대학 부설 「한국어 지도자과정」에 재학중이며, 이 과정을 마친 후 고국에 돌아가 한국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동양학과 내에는 여러 아시아 언어학과들이 있다. 그 중에 한국어학과가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6명 정도이다. 이곳에서는 우리 나라 교수들을 초청해 강의하고 있다. 「파라돗스카동문이 강단에 서게 된다면 폴란드인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수학한 첫 한국어교수가 된다.

그의 한국어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동유럽에 심는 희망의 씨앗과도 같을 것이다. 파라돗스카동문을 통해 우리 나라 문화와 언어가 동유럽 여러 국가에 널리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亨)



## 2001년도

## 결산공고

## 대차대조표

2001.1.1.부터 2001.12.31.까지

(단위: 원)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 자산         |                 | 부채            | (164,755,789)   |
| 1. 유동자산    | (3,557,903,905) | 1. 유동부채       | (129,488,089)   |
| (1) 당좌자산   | 3,557,903,905   | 1) 예수금        | 11,354,459      |
| 1) 현금과 예금  | 3,500,510,974   | 2) 미지급금       | 52,036,760      |
| 2) 미수금     | 1,500,000       | 3) 외상매입금      | 0               |
| 3) 미수수익    | 4,741,561       | 4) 전수수익       | 66,096,870      |
| 4) 받을 어음   | 4,200,000       | 2. 고정부채       | (35,267,700)    |
| 5) 유가증권    | 6,448,500       | 1) 수입보충금      | 2,500,000       |
| 6) 제세선납금   | 40,502,870      | 2) 퇴직급여충당금    | 32,767,700      |
|            |                 | 자본            | (3,400,458,040) |
| 2. 고정자산    | (7,309,924)     | 1. 자본금        | (4,161,271)     |
| 1) 지급보충금   | 2,300,000       | 1) 기본금        | 4,161,271       |
| 2) 전신전화가입권 | 750,000         | 2. 이익잉여금      | (3,396,296,769) |
| 3) 비품      | 53,196,536      | 1)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3,396,296,769   |
| 감가상각충당금    | 48,936,612      | ※당기순이익        | (196,130,164)   |
| 합계         | 3,565,213,829   | 합계            | 3,565,213,829   |

## 손익계산서

2001.1.1.부터 2001.12.31.까지

(단위: 원)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 1. 매출액        | (188,824,006) | 14) 잡비           | 2,709,200       |
| 1) 회보 광고료     | 188,824,006   | 15) 부가가치세        | 23,828,861      |
| 2. 매출원가       | (495,724,246) | 16) 수익사업 비용      | 599,380         |
| 1) 간행물비       | 495,724,246   | 17) 지급수수료        | 1,571,440       |
| 3. 매출총이익      | △306,900,240  | 5. 사업비 차감후 이익    | △919,124,361    |
| 4. 사업비        | 612,224,121   | 6. 영업외 수익        | (1,119,379,417) |
| 1) 인건비        | 86,215,500    | 1) 회원회비          | 704,036,565     |
| 2) 회의비        | 42,578,960    | 2) 수입이자          | 196,680,005     |
| 3) 여비 교통비     | 6,118,900     | 3) 찬조금           | 216,439,517     |
| 4) 전산화비용      | 39,640,111    | 4) 잡수입           | 2,223,330       |
| 5) 사무비        | 23,018,168    | 7. 영업외 비용        | (4,124,892)     |
| 6) 세금과 공과     | 18,827,400    | 1) 고유목적사업지급금보전일액 |                 |
| 7) 보험료        | 9,205,390     | 2) 잡손실           | 3,700,000       |
| 8)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 17,292,550    | 3) 이자비용          | 424,892         |
| 9) 감가상각충당금    | 6,773,135     | 8. 특별손실          | 0               |
| 10) 천목사업비     | 81,351,950    | 1) 고정자산처분손실      | 0               |
| 11) 지원사업비     | 72,693,756    | 9. 법인세차감전이익      | (196,130,164)   |
| 12) 조직강화비     | 179,799,420   | 10. 법인세 등        |                 |
| 13) 관악회기금전출   | 0             | 11. 당기순이익        | (196,130,164)   |

위와 같이 공고함  
2002.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 ⑥9한세실업(주)

# 의류수출 전문업체...매출 2억달러 '거뜰'

## "미국인 9명 중 1명은 「한세 옷」을 입어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D램 반도체 점유율 1위, 인터넷 사용자 1위 등 IT 분야에서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그러나 물밑돌아오는 新산업으로 인해, 한때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담당했던 산업들은 1980년대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며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60~70년대에 작고 미진했던 나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한몫했던 섬유산업 역시 지금은 사양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매년 1백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효자산업이기도 하다.

또 인간의 생활 수준이 풍요로워지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패션과 새로운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욕구가 증대되면서 의류 및 섬유산업이 다시금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간 농축된 노하우와 소비자를 사로잡을 신소재 및 정보기술 등을 함께 활용한다면 21세기에도 우리 나라 경제를 살리는 산업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양기업은 있되 사양산업은 없다」 「옷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할 사업 아이템이다」. 이러한 명제들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임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작년 한 해에만 2천5백5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천만장의 의류를 수출한 니트·의류전문 수출업체 한세실업(주)(사장 金東寧·68년 商大卒)이 그 대표적 기업이다.

국내보다 해외 인지도가 더 높은 한세실업(www.hansae.com)은 1982년 설립

된 이래, 「한국의 파워를 세계에 알린다」라는 명제를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최강국인 미국 전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미국인 9명 중 1명은 한세실업 의류를 입을 정도로 니트·의류를 전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세실업이 창립초기부터 수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한 1987년, 많은 기업들은 더 이상 섬유산업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른 분야로 발을 돌렸다.

이때 한세실업은 개척정신을 발휘, 1988년 사이판에 진출해 공장을 지으며 「HANSAE SAIPAN INC.」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언어문제, 문화차이 등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金사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으로 꾸준히 성장, 지금은 18개 라인에서 1천2백여 명의 직원들이 연간 1천8백만장의 의류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8년 니카라과에 「에스페란자 S.A.」를 설립해 연간 3천만장이 넘는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30개의 봉제라인, 2천명이 넘는 직원들, 연간 캐피 1천4백40만장이 넘는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최대의 거점 니카라과 공장은 앞으로 총 42개 라인으로 증설될 예정이며, 최근에



金東寧 사장

는 대미 수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4천6백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주로 국내 협력업체에서 생산된 원단과 부자재를 해외공장에 수출해 현지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으로 니트의류를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해온 한세실업은 점차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타 국가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생산업체로서의 OEM 방식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체 디자인과 신소재 원단을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대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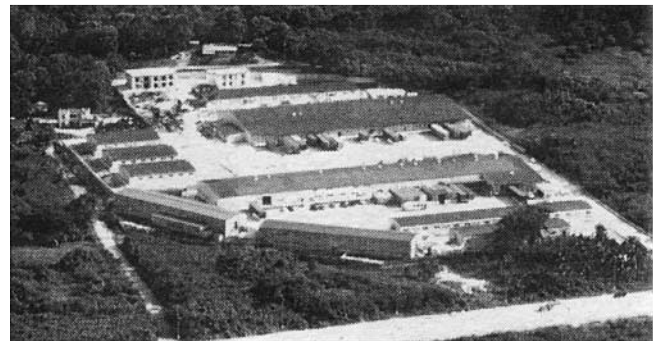
특히 2005년 쿼터(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율세율 관세제도)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5월, 베트남에 현지법인인 「HANSAE VIETNAM CO., LTD」를 설립, 현재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향후 60개 라인과 4천여 명의 직원이 머무르게 될 한세 베트남의 연간 매출 추정액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金사장은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삼게 된 이유를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사이판과 니카라과에 비해 임금이 낮으며,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면에서도 여러모로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제품이 생산되는 즉시 누가 더 빠른 시간 내에 납품할 수 있는지가 수출업체들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차후 니카라과 현지법인을 「Quick Delivery」 형태에 맞는 선진형 공장으로 만들 계획이며, 사이판 공장 역시 단납기가 가능한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로 이끌어갈 생각이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1억5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베트남 공장의 가동으로 2억달러의 매출을 거뜰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에서 직원들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인적자원관리의 윤리와 실무를 실천한 공로로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한 金사장은 「앞으로 WORLD CLASS 패션의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表)



사이판 암팩공장 전경.



암팩공장 봉제 구역.

2001년도

## 결산공고

### 대차대조표

2001.1.1.부터 2001.12.31.까지

(단위: 원)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 자산          |                 | 부채           |                 |
| I. 유동자산     | (4,419,094,335) | I. 유동부채      | (146,483,813)   |
| (1) 당좌자산    | 4,419,094,335   | 1. 미지급금      | 6,236,796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275,435,344   | 2. 예수금       | 1,218,660       |
| 2. 유가증권     | 10,000,000      | 3. 부가세예수금    | 8,837,120       |
| 3. 미수익      | 21,007,531      | 4. 예수보증금     | 1,793,000       |
| 4. 미수금      | 61,576,300      | 5. 단기차입금     | 62,000,000      |
| 5. 가차금      | 1,500,000       | 6. 선수수익      | 66,398,237      |
| 6. 선납세금     | 49,575,160      | II. 고정부채     | (1,079,000,150) |
| (2) 재고자산    | 0               | 1. 임대보증금     | 1,059,340,000   |
| II. 고정자산    | (1,394,739,989) | 2. 퇴직급여충당금   | 19,660,150      |
| (1) 투자자산    | 1,992,672       | 3. 국민연금환급금   | 0               |
| 1. 전신전화가입권  | 1,992,672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0               |
| (2) 유형자산    | 1,392,747,317   | 부채 총계        | (1,225,483,963) |
| 1. 토지       | 655,715,410     | 자본           |                 |
| 2. 건물       | 1,077,258,031   | 1. 자본금       | (1,831,429,422) |
| 감가상각누계액     | 419,068,109     | 1. 자본금       | 1,708,855,444   |
| 3. 구축물      | 413,138,313     | 2. 자본잉여금     | 122,573,978     |
| 감가상각누계액     | 374,590,989     | II. 자본잉여금    | 0               |
| 4. 기계장치     | 136,949,344     | 1. 자본준비금     | 0               |
| 감가상각누계액     | 110,815,544     | 2. 재평가적립금    | 0               |
| 5. 차량운반구    | 32,332,670      | III. 이익잉여금   | 2,756,920,939   |
| 감가상각누계액     | 19,704,429      |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2,756,920,939   |
| 6. 비품       | 79,429,218      | ※ 당기순이익      | (159,174,749)   |
| 감가상각누계액     | 77,896,598      | IV. 자본조정     | 0               |
| (3) 무형자산    | 0               | 자본 총계        | (4,588,350,361) |
| 자산 총계       | (5,813,834,324) | 부채와 자본 총계    | (5,813,834,324) |

### 손익계산서

2001.1.1.부터 2001.12.31.까지

(단위: 원)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 I. 매출액        | 346,045,440 | 17. 소모품비     | 12,166,760  |
| I. 임대료수입      | 216,088,100 | 18. 지급수수료    | 10,585,650  |
| 2. 유지료수입      | 129,957,340 | 19. 잡비       | 1,298,400   |
| II. 매출원가      | 0           | 20. 청소비      | 1,590,900   |
| III. 매출총이익    | 346,045,440 | 21. 목적사업비    | 71,039,285  |
| IV. 판매. 일반관리비 | 429,481,715 | V. 영업손실      | 83,436,275  |
| 1. 직원급여       | 86,723,800  | VI. 영업외 수익   | 517,018,003 |
| 2. 상여금        | 18,153,500  | 1. 이자수익      | 270,716,850 |
| 3. 잡금         | 215,000     | 2. 환조금수입     | 244,500,000 |
| 4. 퇴직급여충당금전입  | 0           | 3. 잡이익       | 1,801,153   |
| 5. 퇴직급여       | 10,487,730  | VI. 영업외 비용   | 274,406,979 |
| 6. 복리후생비      | 12,238,176  | 1. 이자비용      | 3,398,956   |
| 7. 여비교통비      | 0           | 2. 기부금       | 0           |
| 8. 접대비        | 444,150     | 3. 목적사업준비금전입 | 270,716,850 |
| 9. 통신비        | 5,558,257   | 4. 유형자산처분손실  | 184,075     |
| 10. 수도광열비     | 49,299,497  | 5. 잡손실       | 107,098     |
| 11. 세금과 공과금   | 38,763,556  | VII. 경상이익    | 159,174,749 |
| 12. 감가상각비     | 73,381,174  | IX. 특별이익     | 0           |
| 13. 수선비       | 22,828,600  | X. 특별손실      | 0           |
| 14. 보험료       | 4,477,420   | XI. 법인세차감전이익 | 159,174,749 |
| 15. 차량유지비     | 9,925,300   | XII. 법인세 등   | 0           |
| 16. 사무용품비     | 304,560     | XIII. 당기순이익  | 159,174,749 |

위와 같이 공고함  
2002. 3.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



李鍾信치과의원장

## 종형제·부인·처제·동서 등 14명이 동문

### “결혼 앞둔 큰 딸 위해 「가족전시회」 열어요”

현재의 우리들은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얻은 만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의미를 때때로 망각하며 살아가곤 한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동문가족은 이 의미를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한창 준비중이다.

그것은 오는 7월 李鍾信(76년 齒大卒·이치과의원장)동문의 장녀 李燦珠양과 林東昱(2002년 공대 후기졸업 예정)군의 결혼식과 관련이 있다.

2녀 1남을 둔 李동문의 자녀들 모두 공교롭게도 미술학도들이다. 게다가 부인 朴鄒暎(77년 美大卒·강릉대 강사)동문 역시 국내외의 초대전 및 단체전 80여회 이상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가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프로젝트라 명명한 이유는 다음 아난 가족 전시원이 직접 참여하는 미술전시회가 릴레이식으로 5월 1일부터 결혼식 전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준비하게 된 것은, 李동문 가족이 11년 동안 지내온 숙초에서의 생활이 크게 작용했다.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녹아 있는 숙초. 하지만 처음 이곳에서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치대를 졸업하고 가정을 꾸렸으나 형편이 어려웠던 李동문은 당시 강원대 총장이었던 숙부(故 李敏載·前모교 식물학과 교수)에게 빚을 지고 의원을 개원했다. 그는 3년만에 집한 칸을 마련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련한 집을, 선뜻 남동생에게 주게 되었다. 이유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부친을 대신해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李동문은 손이 불편한 형을 위해 20년간 생활비를 대주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앞줄 좌로부터 두 번째 朴鄒暎·한 명 건너 朴惠暎동문. 가운데 줄 좌로부터 두 번째 梁承宇·李鍾信·李相熙동문. 뒷줄 좌로부터 첫 번째 林東昱군. 원내 故 朴京浩동문.

「집안을 골고루 일으키는 작은 밀알」의 노릇을 해왔다. 특히 숙초를 방문하는 모든 친척, 사촌, 친구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며 인술을 펼친 그의 「희생」 정신은 그토록 서울에 가기를 원했던 부인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이후 자녀들은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숙초에서 훗날 예술가로서 꽃필 수 있는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李鍾信동문의 독특한 가풍은 친아버지와 다른 李敏載선생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북 출신인 부친(故 李根載)과 숙부가족은 6·25전쟁 시절 모든 것을 버리고 모두 남한으로 피란을 오게 되었다. 그 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숙부가 두 가족의 아버지로서, 정신적 지주로서 이들 모두를 한가족처럼 여기며 보살폈다고 한다. 특히 숙부의 장녀 李仁淑(71년 文理大卒·前경기도박물관장)동문, 장남 李鍾範(73년 文理大

卒·강원대 자연대학장)·李祐卿(80년 音大卒·강원대 강사)동문 내외, 차남 李鍾浩(76년 工大卒·인하대 교수)·宋恩承(80년 家政大卒·호서대 교수)동문 내외, 차녀 李仁卿(80년 家政大卒·네덜란드 라이든 연구원)·李秀澤(77년 社會大卒·주네델란드 대사)동문 내외와는 친형제 이상의 끈끈한 우애로 젊은 시절 함께 동고동락했다. 「한 사람이 잘되면 그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가풍으로 여기는 둘째 동서 李相熙(74년 工大卒·강원대 공대학장)동문과 셋째 동서 梁承宇(78년 師大卒·대우정보시스템즈 상무)동문 역시 두 집안 일에는 무엇보다 열성적이다.

당시 경성에서 살고 있던 장인 故 朴京浩(57년 商大卒)동문은 이 곳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서울로 유학과 모교 商大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마

음을 먹었다. 하지만 모친과 누나에게 다녀오겠다며 손을 흔들었던 그 때가 가족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이북에서 잠시 피란온 모친 金京淑여사와 군부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했고 이를 계기로 朴京浩동문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 전세계를 누비며 노년까지 일을 했다고 한다. 朴京浩동문과 매 주말마다 산을 오르곤 했다는 처제 朴惠暎(80년 美大卒·강원대 평생교육원 강사)동문과 朴鄒暎동문은, 정상에 오른 뒤 朴京浩동문이 항상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마지막 결론은 혼자서 외롭게 결정하라」는 말을 남겨 이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보물단지처럼 키워온 딸을 시집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李동문 내외는 분가하는 딸과 이를 환송하는 가족들을 위해 「가족 전시회」를 연다. 아이들이 유년시절부터 스케치북, 공책, 심지어는 종이에 자유롭게 그려놓은 낙서들까지도 한 점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것을 새로 각색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광화문 정원갤러리에서 「보물단지」라는 제목으로 전시한다. 아울러 朴鄒暎동문이 가족을 주제로 그린 여러 점의 작품들도 보너스로 관람할 수 있다고. 또한 「보물단지」 전시회가 첫 스타트를 끊으면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녀 李燦珠양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인사동 갤러리 「괴쉬」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갖는다. 끝으로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은 바로 차녀 李惠珠양. 결혼식 때 언니와 형부의 유년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모습들을 대형 영상물에 담아 특색 있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가족 중 유일하게 미술에 재능(?)이 없는 李鍾信동문이지만 그를 빼놓고서는 전시회는 있을 수 없다. 이는 그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 던진 첫 마디가 「희생」이었습니다. 이를 묵묵히 이해해준 덕분에 연애시절 그녀와 했던 약속들, 특히 힘이 다할 때까지 화가의 길을 밀어주셨던 약속은 변함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번 전시회를 돕는 것도 제 몫』이라는 李동문의 얼굴엔 가족 사랑의 미소가 가득하다. (表)

## SNUA OPINION LEADER

## 지구를 살리는 빗물모으기 운동

지난 1995년 UN으로부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 한국.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할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쉽게 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최근 한국 빗물모으기 운동본부 설립한 韓武榮으로부터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리 나라는 강우특성상 봄 가뭄, 여름 홍수의 피해를 주기적으로 겪어 왔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봄 가뭄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집중강우로 변하는 추세 때문에 올해에도 물문제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래에도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물관리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나라의 강우량은 세계 평균강우량과 비교해 적지 않으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1인당 활용가능

직한 빗물모으기 방법은 공공건물이나 집집마다 빗물탱크를 두어 빗물을 받아서 수세변소수나 청소 및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부수적으로 시민들에게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물절약의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댐 건설, 해수의 담수화, 중수도, 인공강우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엄청난 시설비용과 운전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에너지 과다사용 등으로 지구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들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빗물이용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 빗물이용이 경제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댐의 물을 쓰려고 하면 멀리서부터 끌어와야 하는데, 이때 에너지와 운송비용이 들게된다. 반면에 빗물은 떨어진 바로 그 그곳에서 모아 사용하게 되므로 운송비용이 들지 않는다. 옛날에 집에서

다. 최근에 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나 조경물에는 모두 다 빗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빗물이용의 개념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측우기를 발명해 비의 소중함과 활용방법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왔다.

## 물문제 해결하기 위해

집집마다 빗물탱크 두어  
수세변소수·조경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왔으며 지금도 섬지방에는 빗물을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월드컵 경기장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이 전부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빗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실정에 맞도록 빗물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장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가정마다 2톤 가량의 빗물탱크를 설치해 현재 약 1천5백만개의 빗물탱크가 이미 보급됐다. 대만의 동물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물의 중요성과 물절약을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인도나 중국 등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댐 건설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물을 자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들 모두 빗물이용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우량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에서도 빗물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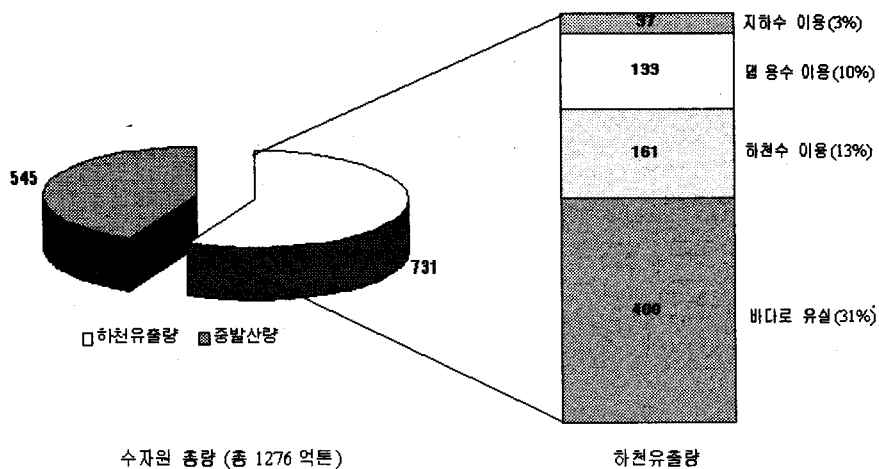
우리가 새로운 수자원으로서 빗물을



韓武榮

- 1977년 모교 공대 졸업
- 1979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78~1984년 현대건설 근무
- 1989년 美텍사스 오스틴대학 박사학위
- 1989~1991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1991~1999년 경희대 교수
- 2002년 한국 빗물모으기 운동본부 회장
- 현재 모교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우리 나라의 수자원 현황 (단위 : 억톤)



수자원량은 연간 1,488m³로서 UN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부족 국가란 1인당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000~1700m³인 나라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다.

우리 국토에 내리는 빗물의 총량은 1천2백76억톤이다(건설교통부, 2001). 이중 지하수, 하천수, 댐에서 이용되는 양은 28%인 3백31억톤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증발산으로 없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물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누구든지 홍수 때 빗물이 그대로 강으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빗물을 잘 모았다가 가뭄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빗물모으기 운동』인데, 다양한 종류의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빗물을 보관해 가뭄 때 쓰자는 것이다.

빗물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댐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환경문제로 인해 반대의견도 많이 있다. 빗물을 모아 땅속으로 침투시켜 지하 대수층에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보다 더 바람

빨라나 청소를 하기 위해 힘들게 우물물을 길어다 쓰기보다는 빗물통에 받아 놓은 물을 쓰는 것을 선호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빗물이 댐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또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된 섬지방의 주민들이 비가 올 때 해수담수화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빗물을 사용할지를 비교해보면 빗물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수도라는 것은 한번 쓴 물을 다시 처리해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것인데, 빗물은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장마가 지는 여름날, 공짜로 떨어지는 빗물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서 중수도를 쓰자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빗물의 상대적 경제성 비교 외에도 빗물을 이용하면 도심의 홍수 예방과 가뭄의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수질 오염이나 친환경적인 공간창출에도 빗물이 사용되고 있다. 강우 초기의 도로배수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처리해서 사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 자연친화적인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모아둔 빗물을 사용하면 된

이용해 현재 당면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제도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교 공과대학의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빗물모으기 운동본부를 설치해 빗물의 소중함, 빗물이용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에 건의를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빗물이용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에 주력하면서 빗물이용과 관련된 산업체의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문제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빗물모으기 운동이다. 이 문제는 2003년에 열릴 세계 물 포럼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외국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선진국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빗물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빗물이용은 세계 공통의 과제

# 모교소식

## 2002학년도 4천1백58명 입학

李총장 “적당주의 버리고 대학생활 임해주길”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을 비롯한 1백여 명의 교내 인사를 포함해 동경대 사사키 다케시(佐佐木毅)총장,

본회 林光洙수석부회장, 孔大植 공대동창회 상임부회장, 신입생,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기관

장 소개에 이어 李基俊총장은 식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은 안일주의, 기회주의, 적당주의를 철저히 버리고 열과 성을 다해 대학 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경대 사사키 총장은 축사에서 『21세기에는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사고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실천가가 필요하다』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悟性을 사용하는 용기를 배양해 21세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이후 순서로 오후 2시 학생처 주최로 문화관 대강당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환영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초청가수로 김경호, 성시경 등이 출연했다.

2002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결과는 수시와 정시전형을 포함한 3천7백93명, 정원의 학생입학전형 87명, 재외국민 41명, 특수교육대상 7명, 외국인 2백30명 등 총 4천1백58명이다.

## 간호대 洪京子학장 선임 생활과학대학 金敏子학장



洪京子 학장



金敏子 학장

지난 3월 1일부터 간호대학장에 간호학과 洪京子교수, 생활과학대학 학장에 의류학과 金敏子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洪학장은 1966년 모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美워싱턴대에서 석사학위,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모교에 부임, 병원 간호과장

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신임 金학장은 1971년 모교 가정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美오레곤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모교에 부임, 학생담당부학장보, 의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 林光洙회장 대학신문 인터뷰

### “명분 중시하는 선비의 기개 닦기를”

모교 대학신문 3월 25일자 제1572호에 본회 林光洙회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지난 3월 21일 모교 대학신문 배정현·송재용기자가 임광토건 회장실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을 만나 신임 동창회장에 취임한 소감과 향후 동창회 운영계획 등을 물어보았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떻게 총동창회장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게 됐습니까? 동기가 있으신지요.

『서울대 총동창회장이라는 자리가 하고 싶다고, 또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니지요. 다만 제가 공과대학 동창회장을 맡아 공대인의 숙원인 「엔지니어하우스」를 완공하고, 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을 2년째 맡아오면서 직분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초심을 흐트리지 않고 나름대로 헌신해온 점들이 아마 여러 동문들께 조그마한 믿음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신문 송재용 기자 제공

더불어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20만 서울대인의 확고한 신념이 우리 대학의 교육자원과 환경의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동창회 차원에서 후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앞장 설 책임을 맡겼다고 봅니다.

—공대 출신으로서 작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선 우리 대학은 물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산업화 시대에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또 IT 정보통신, BT 생명공학, NT 나노공학 등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신산업화 시대에 중추가 되는 사람들이 기초과학과 이공계 출신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된 채 국가경쟁력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특히 기초과학은 창조의 뿌리이며 번영의 샘입니다. 「과학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유치·양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은 물론 국민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국가, 사회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이공계 출신들의 활동상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력과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병역해택, 장학금 지급의 대폭 확충, 우수 인력에 대한 해외유학과 연수 적극 지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제고 등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취임사에서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깔고 서울대인을 휴먼리소스화하여 모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용한 네트워크를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답할까 합니다. 저는 1952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로서 제가 배우고 닦은 공부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간접자본 즉 SOC와 산업인프라 건설에 일생을 바쳐온 건설경영인입니다.

다.

이러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모교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자원은 물론, 국내의 20만 서울대인이라는 양질의 인적자산을 우선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입니다.

올해 중반쯤 발간될 「서울대 인명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인적자료를 집대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팅하여 「직업별·직장별 명부」도 함께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다원화·전문화·개성화되고, 글로벌라이즈 되는 시대변화는 물론, 국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칭 「서울대 지적자원 봉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재미동창회 소속 동문들부터 먼저 학교 당국과 협의중이며, 그 발족을 준비하고 있음을 차체에 밝힙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시각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 정보화 시대의 컴퓨터 등 IT 능력을 배양하는데 선배들이 나설 것입니다.

—역시 취임사에 서번트 리더십에 관해 강조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은 바로 군림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또 실천하는 엘리트를 말합니다. 그 요체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 즉 「고귀하고 지체가 높으면 높은 만큼 책임을 다 하라」입니다. 둘째, Sympathy :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제 사회적 약자는 물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라. 셋째, Listening : 계획과 방안을 강구하는데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수렴하라. 넷째, Stewardship : 봉사하며 헌신하고 감싸줘라. 사랑하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겨레나 조선일보 등 각종 일간지에서 이른바 「서울대 문제」에 대해 많이 지적하는데 사회에서 서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국립대학이라는 특성과 한계 때문이었지만 모교는 예산, 인사,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경직적인 관료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수재를 모아서 둔재를 배출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대 학생마저도 학교수업이 사회생활에 별 쓸모나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자평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과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자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교가 미국이나 일본 유수대학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또 사사건건 교육당국의 규제와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과학논문색인(SCI) 인용횟수는 지난 4년간 세계 126위에서 55위까지 오르는 등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모교발전을 위해 힘을 합하기만 한다면, 또 우리 국민들의 깊은 이해가 함께 한다면 모교가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강하십시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력을 기르고 닦으십시오. 학생의 실력은 우선 공부와 연찬을 통해 지적 소양과 견식을 넓히고 깊게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와 여행,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 그리고 인간적 감성의 세계를 넓히십시오. 명분을 중시하는 올곧은 선비의 기개를 닦으십시오. 명분은 도의요 도덕이며, 원칙이자 순리입니다. 사회를 정화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면 우선 지식인의 도덕적 원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정년퇴임 교수 프로필

##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3명이 지난 2월 28일 정년퇴임식을 가졌으며,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崔淳鳳교수·독어독문학

59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독일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기여, 「토마스 만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독어독문학회 이사, 모교 인문대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



吳麟錫교수·서양사학

59년 師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서양사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독일현대사」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역사교육연구회장,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모교 인문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李敏浩교수·물리학

62년 文理大卒. 미미조리대학 물리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현대물리학」을 포함, 중고등학교 물리교과서 다수를 집필했으며, 육군기술연구소 물리연구원 등을 역임.



林龍安교수·지구환경과학

61년 文理大卒. 獨逸대학 이학박사 학위.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해양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한국의 제4기 환경」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해양학회 회장, 모교 해양연구소장 등을 역임.



尹明老교수·서양화

60년 美大卒. 미뉴욕프랫그래픽센터 판화전공 수료.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서양화 및 판화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모더니스트들의 도전과 환상」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현대판화가 협회장 등을 역임.



林承權교수·교육학

60년 연세대 師大卒. 고려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학과장, 모교 교육종합연구원 특수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



李殷芳교수·약학

59년 藥大卒. 日동경대학 약학박사 학위.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천연물의 약리학 및 그 성분학적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생약학회 회장,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 모교 천연물화학연구소장을 역임.



高永根교수·국어국문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대 및 중세 국어의 형태론과 통사론 등 국어학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어학 학술지 「형태론」의 편집 대표 등을 역임.



鄭智榮교수·불어불문학

61년 文理大卒. 佛그르노블대학 문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불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번역서 「피노키오의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불어불문학회장 등을 역임.



金璟東교수·사회학

59년 文理大卒. 美코넬대학 사회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사회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사회학회 회장, 모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상임 이사 등을 역임.



張凌成교수·물리학

59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현대광학」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모교 자연대 교무학장보·물성과학연구소장, 한국광학회 회장 등을 역임.



林英一교수·농생명공학

59년 農大卒. 美아이오와주립대학 농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동물육종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축산학회 회장,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회장, 모교 실험목장장·축산과학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



李好璘교수·법학

58년 法大卒. 모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민법과 국제사법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국제사법」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모교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朴承載교수·물리교육

59년 師大卒. 美북콜로라도대학 교육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물리학 및 과학 교육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교과교육학회 창설회장, 서울시교육청 교육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李純炯교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인체기생충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풍토병연구소장, 모교 의과대학장,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장 등을 역임.



朴熙鎭교수·영어영문학

59년 師大卒. 美인디애나대학 문학박사 학위.

71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영미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버지니아울프 연구」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모교 여교수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



李炫鎭교수·언어학

59년 文理大卒. 英런던대학 일반언어학 및 음성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음성학 및 언어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기여했으며, 대한음성학회 회장, 한국언어학회 회장, 남방문화연구회장, 모교 시청각교육관장 등을 역임.



金載周교수·통계학

60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통계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현대통계학」, 「신뢰성공학」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한국신뢰성연구회장 등을 역임.



權奉命교수·생명과학

60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식물생리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광합성」, 「식물생리학」, 「일반생물학」 등 다수의 대학교재를 집필했으며, 한국식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



禹建錫교수·농생명공학

59년 農大卒. 모교 대학원 농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곤충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장, 한국곤충학회 이사, 모교 농과대학 학생학장보·양봉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崔基元교수·법학

59년 商大卒. 獨本대학 법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상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회사법신론」 등 5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경영연구원장, 상사법무연구회장 등을 역임.



張楠基교수·생물교육

60년 師大卒. 日동북대학 농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생태학·생물교육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한국생태학회 회장,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한국행동생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



李鍾昕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구강생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구강생물학회 회장, 대한생리학회 회장, 모교 치과대학 치학연구소장·치과대학장 등을 역임.



## 음악으로 이 사회가 순화되었으면...

全東秀(80년 音大卒)음악평론가

1985년 가을,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Tutti dentro」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비록 17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지금 우리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영화이다. Tutti는 「모두」이고 dentro는 「안으로」를 뜻하는데 「모두가 교도소에 간다」는 제목의 코미디 영화이다. 어느 부패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는데 금융,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인과 심지어는 종교계 인사까지 모두 잡혀들어 간다. 이 영화는 수사를 맡았던 검사까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끝을 맺는다.

요즘의 신문, 방송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는 각종 부패사건이다. 「게이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끊이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멀하지 않겠다」는 성경말씀이 새삼 떠오른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자.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을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깨끗하지 못한 존재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걸리지 않았다고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매일 매일을 반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일지 모른다.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참회의 길이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겸손이다.

중학교 시절, 친구와 자주 다투었던 적이 많았다.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음악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순화되어 내가 먼저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음악을 하게 된 나의 첫 번째 동기이다. 그 후 고등학교 시절 내 마음을 위로 받기 위해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은 우리의 거친 마음을 순화시키고 위로를 주

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폭력이 난무하고 원조교제라는 말이 거리낌없이 회자되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고가 팽배해져 있다. 인성교육보다는 입시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 풍토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사고를 병들게 하고 있다. 입시에 있어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쯤이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 교육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시켜주는 문화생활에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음악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이제는 삶에 지친 이웃을 위해 음악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산다」는 말이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며 궁



극적으로 사회 전체를 아름답게 만든다. 나보다 남을 앞세우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회가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옛 성현들은 일찍이 황금이 이상화되는 것을 경고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물질을 완전히 배제한 삶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물질과 정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신적인 삶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황금만능주의로 세상이 각박해지는 이 사회가 음악을 통해 순화되고 정서를 함양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무모한 효母보다 진정한 사랑이 중요

崔賢鎔(90년 家政大卒)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요즘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한다. 이유는 전문적인 영어 유치원, 특기교육을 할 만한 학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이 생겼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생 한 아이의 교육비로 한 달에 몇 백 만원이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영어 유치원, 태권도, 리더십 트레이닝, 미술학원, 수영 또는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학원 및 개인교습비 등을 합하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이 교육비로 쓰인다. 심한 경우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이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교육을 받으려면 유치원 수업 후 적어도 하루에 2~3개 정도의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받는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터나 친구 집에서 놀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을 수 없다.

아이는 같이 놀이터나 집에서 놀던 친구들이 학원 또는 개인레슨 때문에 얼마 놀지도 못하고 뽀뽀가 가버리자 친구 따라 같이 가고 싶다고 떼를 쓰곤 했다. 아이 친구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애가 두 돌이 지났을 때 한글 공부를 시킨 적이 있었다. 책도 좋아하고 몇 권은 외우기도 해서 시작했다. 한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30분씩 수업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와 놀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을 알게 되는 형식이어서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선생님이 바뀌자 아이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서 싫다고 엄마처럼 안 바뀌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아이는 고개를 흔들며 싫어했다. 한글 선생님 말로는 시작이 너무 늦고 이 정도 나이에 글씨를 읽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지만 그만하기로 했다. 지금 큰애가 6살이 되니 자연스럽게 글도 읽고, 쓰고 하면서 재미있어 한다.

작년에 큰애를 위해 이사를 왔다. 주위에서는 강남이 집 값도 많이 오르고 교육하기도 좋은데 왜 이사를 가냐는 의견도 많았다. 친구들이나 이사 온 사람들도 거꾸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강북이나 그 외 지역에서 아파트 2채 정도의 값으로 강남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 온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가족들 모두 만족하고 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왠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덜하고 있는 것 같은 부담감, 다른 아이들은 무엇 무엇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안이하게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엄마가 얼마나 자주 오고 열심히 활동하는냐에 따라 아이들 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을 하던 중 강남에서도 꽤 교육열이 높다는 곳에서 보내다가 반에서 좀 극성인 엄마들 10명안에 들지 않자-그분도 직장 생활 때문에 매일 학교에 가기가 불가능했다-아이가 자주 위축되어서 이사왔다고 한다. 새 학기 때 이 곳 초등학교 선생님 중 여러 명은 학부모가 학교에 선물이나 봉투를 가져오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니 특별대우해 달라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사 오기 전의 유치원에서는 행사 때마다 대표로 정해진 엄마들이 떡, 과일 등을 분담해서 준비해야 했다. 이렇게 활동한 엄마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그 반의 대표처럼 인정됐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일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미래를 보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만들어진 위치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작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이런 역할로 아이가 성공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사 와서는 수녀원과 연결된 유치원에 보내게 됐다. 엄마가 준비해야 하는 건 한 달에 한번 정도의 간식. 누구나 일정한 시기에 간단한 메뉴로 준비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새 학기가 되기 전 봄방학 때 유치원에서 가정 방문을 했다.

전에 옆 동에 살던 분과 통화를 하던 중 유치원 선생님이 올 것이라는 이야길



했더니, 『너무 귀찮겠다. 오시면 어떻게 그냥 보내. 성의 표시는 해야지』라고 했지만 유치원에서 물 이외의 음식도 준비하지 말고 봉투 같은 건 절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은 놀란 눈치였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너무 어린 시기에 많은 것을 배운다고 그것이 제대로 다 흡수될까 의문이다. 아이가 흥미를 느낄 때 적절한 자극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여유와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강남에 특화된 교육시설이 많고 교육에 열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름대로의 장점도 많다. 하지만 외곽 지역의 아파트 여러 채의 가격으로 강남의 교육 중심지로 옮겨 올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 서울에 있는 「대학」과 서울대

崔洙慶 : 權世元(78년 社會大卒)동문 부인



非서울대인은 서울대 교문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몇 년 전 관악산을 등산할 기회가 있었지만 차마 서울대 교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학교 담을 돌며 넘겨다보기에만 바빴었다. 왜냐하면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곳은 나의 모교도 아니었고, 또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는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는 서울대에 대한 콤플렉스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라. 그것은 서울대에 대한 경이와 부러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일컫는 것이다.

교문을 장식하는 멋진 한글자음, 까마득한 계단 사이로 자리잡고 있는 암적색의 벽돌건물은 서울대의 신비를 한층 더 해주는 것이었다. 자신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뚫던 나는 언젠가 저 교문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나의 아이들이라도 나의 이 바람을 이루어주기를 세상의 모든 엄마들처럼 기대했었다.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그

기대는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야만 했다. 초등학교 시절, 서울대 수석입학을 할 것 같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조금 낮추어져 서울대 수석입학은 못하더라도 들어가기만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던 것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굳이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으면 행복하리라 바뀌었다.

이제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서는 서울대, 명문대 타령에서 멀어져,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심정이 되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심정일 것이다. 그 만큼 「서울대」는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탑 위에 있는 상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러워하는 명칭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생겨 났는 지도 모르겠다. 「서울대」와 「진짜 서울대」, 명칭은 비슷하지만 전자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리키는 것이며, 후자는 국립서울대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둘이 다른 느낌으로 나누어지게 된 연유는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가 아이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면 아이는 편도 2~3시간씩의 통학으로 고통받으며, 대학이 있는 인근에서 학교를 다니면 거주비용이 학비의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된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한번으로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서울시내 대학을 선호하게 되나, 입학하기가 쉽지 않기에 「서울에 있는 대학」의 줄임말인 「서울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국립서울대학교는 전국 수험생의 0.3~0.5%가 입학할 수 있으므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서울대」생인지 재차 물어보며 확인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수 두뇌 집단은 어떠한 인상을 줄까?

그들은 대체로 안경을 쓴 남학생이 많으며, 순진하고 착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범생」형이라고 할까. 그 중 총명하고 예쁜 여학

생도 간혹 있으며, 멋쟁이 남학생도 가끔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착하고 순진한 「모범생」형의 서울대생을 비난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 서울대 출신인 직원을 둔 모 중소기업체 사장은 「서울대 출신은 「인화」와 「단결」이 되지 않는다」며 불평하지만, 그것은 서울대인을 잘 모르고서 하는 말일뿐이다.

서울대인은 조직의 구성에 있어 「뿔마니」나 「조무라기」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조직의 「머리」나 「리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뿔마니」나 「조무라기」로서의 무개성은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는 역할인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서울대인의 개성을 그 중소기업체 사장은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또 전국민의 0.1%에 해당하는 그들을 「머리」로 키우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익히 접하게 되는 사실이지 않는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 지도자, 책임자에 어느 대학 출신자보다도 서울대인이 압도적인 다수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머리가 좋기에 상황판단이 빠르며, 빠른 상황판단 못지 않게 상황에 적응하는 힘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조직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평소의 생각과 리더로서 그들의 활동상황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서늘해움을 느꼈다. 경이의 대상인 서울대와 서울대인, 그들은 실상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모공 수축과 주름을 없애 피부를 젊고 탄력있게 해줍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자국 등을 없애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 관심을 갖지 않는 여성이 있을런지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돈은 얼마를 들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성 또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개에 1백8만원짜리 영양크림(고세코리아의 「AQ크림 밀리오리티」)과 금비누가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일 테지요.

사실 화장품 하나에 1백만원이 넘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5g짜리가 1백8만원이니깐 g당 2만4천원입니다. 금값보다 훨씬 비싼 셈이지요. 신문에 그런 화장품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보도된 날 저희 사무실에서조차 않게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몹시 놀라는 눈치더군요.

그러나 사실 여성화장품의 값을 알고 나면 크게 놀랄 것도 없습니다. 1백만원이 넘는 건 처음이라지만 노화방지에 좋다는 영양크림 중엔 30만~60만원짜리가 많으니까요. 시슬리, 라프레리, 드라메르, 가네보 등에서 파는 영양크림이 그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화장품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다양해지고 가

순이라는 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입화장품이 그렇게 좋을까요. 또 갈수록 비싸지는 기능성화장품이 정말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선전문구처럼 기능적이고 효과적일까요. 제가 기억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시초는 비타민E 제품입니다. 캡슐에 들어 있었지요. 지금도 일부 회사에서 나옵니다.

90년대 후반엔 레티놀 바림이 거셌지요. 잔주름을 없애준다는데 사지 않고

요소 탓이 크지만 케이스를 꺼냈을 때의 과시욕구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효과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비싼 만큼 효과가 있는 지는,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제 경우 피부에 맞는 식물성화장품 한 종류를 제외하곤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향으로 인한 기분 차이가 다소 난다면 모르지만요.

결국 비싼 수입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기존의 제품을 다 쓰기도 전에 나오는 각종 신제품이 무서운 속도로 팔리는 건 나이에 관계없이 수많은 여성들이 「이번엔 진짜」라는 광고를 「설마」 하면서도 또 믿는 탓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정말이지 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게 여성의 본능이니까」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때문만일까요. 수많은 여성, 아니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 풍토가 외제화장품 회사의 배를 한없이 불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실을 외면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 경우도 솔직히 예쁜 여자를 보면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 저 자신도 좀더 깨끗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니까요. 다만 비싼 화장품, 화려한 라벨의 수입화장품이 그 값만큼 효능이 있는지 한번쯤은 의심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한 달에 2만원씩 1년에 24만원만 기부하면 정말 우수한 후원회원이 되는 복지시설이 우리 사회엔 너무도 많습니다. 연회비 20만원이면 국내 유수의 문화시설 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 1백8만원짜리 화장품 & 금비누

격 또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따르면 2001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4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그중 수입화장품이 1조7천억원으로 점유율 30%가 넘었다고 하니 한국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엿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실제 백화점의 1층 화장품 매장 대부분이 수입화장품입니다.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랑콤, 시슬리 등 프랑스 화장품에서 에스티 로더, 클리닉 등 미국화장품, 시세이도, 가네보 등 일본제품까지 꼭 들어서 있지요.

화장품 매출 순위 또한 1위부터 5위까지 거의 몽땅 수입화장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른바 부자촌이라는 서울 강남의 경우 비싼 것일수록 잘 팔리고 있지요.

같은 현대백화점이라도 압구정점에선 시슬리/샤넬/에스티 로더/랑콤/크리스찬 디오르의 순인데 비해 신촌점에선 에스티 로더/랑콤/샤넬/아모레/클리닉

배길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르는 비타민C 바림도 폭풍에 가까웠지요. 최근엔 미백과 보습크림, 노화방지 자외선 차단 크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줘야 하고 자외선 차단이야말로 피부 보호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피부과 의사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지요.

일대 선풍을 일으킨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초기 레티놀제품이 가려움증, 각질 등 이상 반응을 일으킨 건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제 경우도 얼굴에 자꾸 뭐가 나는 바람에 결국 조금밖에 못썼습니다.

비타민E와 C 제품도 마찬가지였지요. 아깝기 짝이 없었지만 얼굴에 뭐가 나면 손을 대게 마련이고 그리고 나면 더 큰 흠집이 남으니 사용을 멈출 수 밖에요. 물론 제 피부가 유독 민감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기만 할까요.

다른 물건도 그렇지만 화장품의 경우 유독 비싼 제품이 잘 팔리는 건 「아무래도 비싸면 효과가 있겠지」라는 심리적

## 의과대학

## 합춘대상·유공동문 등 시상



좌로부터 朴容熙병원장, 鄭求榮동문 부부, 李희장, 朱權源동문 부부, 韓相泰동문, 李鍾郁학장.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26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3회 합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李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잘하든 잘못하든, 늘 자녀의 내일을 위해 용기를 북돋우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교가 시세를 탐하지 않고 이 나라 의료를 지

켜나가는 훌륭한 후배를 길러내고 이들이 의료의 지도자로서, 모교 사랑의 실천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시상하게 되는 합춘대상이 우리 나라 건강보건 증진과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금자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朴容熙병원장은 『더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병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맥킨지사의 컨설트를 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춘대상 시상식에서 심장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鄭求榮(57년 醫大卒·美제퍼슨의대 명예교수)동문이 학술연구부문 상을, 서울대병원의 기를 마련하고 우리 나라 의료의 근대화를 이끈 朱權源(43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동문이 의료봉사부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소아마비 박멸에 큰 공적을 세우며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한 韓相泰(55년 醫大卒·WHO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동문이 사회공헌부문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三壽·李奎恒·池三峰·金鳳泰·李珍鏞·朴永寬·成相哲·洪正龍·金辰圭·金承陸동문과 서울시 광진구지회를 비롯한 8개 우수 지회와 21·35·37회 등 우수 동기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간호대학

## 명예회장 임기 5년으로 개정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3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朴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 개최 및 지부 활성화 사업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동창회의 단결을 도모하는 가을 바자회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모교 洪京子신임 학장은 『모교 발전기금을 증원하고 노후된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해주시는 李恩玉 전임 학장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교수와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회장이 새로 입회한 동문들에게 회원메달을 전달했으며, 윤주영동문이 신입회원을 대표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보니 이제서야 모교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낀다』며 『선배동문과 함께 모교와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칙 제4장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서 전임 동창회장 중 명예회장에 추대된 동문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돌아가며 순방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동기생 11명이 입학 33주년 기념오찬을 함께 했다.

李선생님께서 첫 강의를 우리 신입생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 때까지 8학기에 걸쳐 「정치사상사」의 흐름을 일깨워 주셨기에 「입학동기」라고 우리끼리 농담을 한다.

이젠 우리도 50대 중반의 중년이 되어 세속의 부질없는 욕망으로부터 꼭 자유로워진 분위기가 엿보인다. 그래도 지난번에 YTN-TV 대선 지방생들의 그룹토론 생방송을 진행했던 金在洪교수가 『대권이야말로 정치학도의 몫인데 토론진행을 하면서 어쩐지 주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자, 누군가가 우리 모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대권야망을 포기한 적이 있는냐고 웃기는 바람에 다들 폭소하기도 했다. <글: 朴聖勳 청와대 통일비서관>

간호대 동창회 楊銀淑명예회장  
특지장학금 3천만원 추가 출연

간호대 동창회 楊銀淑(54년看護大卒)명예회장(사진)이 지난 3월 15일 본회에 특지장학금 3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楊동문은 지난 1999년 2월 11일 특지장학금 1구좌(5천만원)를 출연해 현재까지 모교 간호대 재학생 5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온 바 있다.

## 문리대 65회

## 초대 회장에 宋泰鎬동문 선임



문리대 65학번 동기회(회장 宋泰鎬)는 지난 3월 25일 홍사단에서 모교 언론정보학과 朴明珍교수(본보 논설위원)를 비롯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경과보고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 초대 회장에 宋泰鎬 前문화관광부 장관, 부회장에 송실대 金永珠교수·이화여대 金聖二교수·아주대 金斗煥교수·한국델파이(주) 裴吉勳사장, 감사에는 (주)오피컴 金容泰감사, 감사에 (주)더리스컴 鄭德雲고문

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宋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 동문대표 인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간의 단합을 유지할 것이며, 경조사 모임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준에 구성된 다른 동문회나 동창회와도 유대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同會는 오는 4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동문회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인 활동 방향들을 구상할 계획이다.

## 수의과대학

##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전달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3월 8일 모교 수원캠퍼스 수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200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李회장은 모교 재학생 은민영(본과 2년)양과 권남훈(미생물학 석사 2년)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된 박건택군에게 동창회장상을,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계영군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한편 동창회 장학재단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鄭英彩이 사장이 李희장, 車鍾相(60년卒)·林永一(64년卒)·魚重元(69년卒)·李角模(69년卒)동문에게 이사 위촉장을, 모교 黃禹錫교수에게 감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表>

## 의종은 「정치69」 동기생들



앞줄 좌로부터 金在洪(경기대 교수), 필자, 李洪九(중앙일보 고문), 金己燮(前국정원 차장), 金仁圭(KBS 뉴미디어본부장), 뒷줄 좌로부터 趙煥益(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李元根(경찰대 교수), 李瑞恒(외교안보연구원 교수), 趙重衡(자민련 송파을지구당 위원장), 高永才(한겨레신문 광고국장), 張光(지산인터넷서널 대표), 金宅坤(MBC 보도국장).

정치학과 69학번 동기생18명은 어려운 격동기에 학창생활을 함께 해서 그런지 30년이 넘도록 의종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어, 다른 학과나 선후배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 두 달에 한번씩은 꼭 모임을 갖는데, 금년들어 세 번째 모임으로 지난 3월7일 입학동기(?)이신 李洪九선생님을 모시고

## 대구·경북지부

### 신임 기관장 환영만찬회 개최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池弘源)는 지난 3월 15일 대구 시내 산촌식당에서 (주)서한 金乙永(65년 法大卒)회장, 文熹甲(66년 行大院卒)대구광역시장, (주)금북주 金泓殖(71년 經大院卒)회장, 대구지역에 새로 부임한 5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기관장 환영만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池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지역에 많은 동문들이 신임 기관장으로 부임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동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文熹甲대구광역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언론사 대표를 포함한 여러 중진들이 새로 오셔서 지역 발전에 많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신임 기관장은 金明吉(66년 法大卒)대구지법원장, 대구MBC 李兢熙(70년 文理大卒)사장, 宋光洙(71년 法大卒)대구고검장, 金永珍(72년 法大卒)대구지검장, KBS 李炳淳(73년 師大卒)대구총국장 등이다.

## 음악대학

### 모교 신입생들 연주회 선보여



음악대학동창회(회장 金正吉)는 지난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순서로 올해 모교에 입학한 김진희(트럼펫 전공)·정해민(트롬본 전공)·신미림(튜바 전공)·양과 박용욱(트럼펫 전공)·오형석(호른 전공)군이 「Glory Look Away」와 「baroque Suite」를, 조가현양이 바이올린으로 「Carmen 환상곡」을 선보이며 뛰어난 실력을 뽐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일년에 한번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 동

문간의 결속을 다지고 모교와 우리 사회의 음악 문화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어느 곳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모교 金 燮학장은 3월 29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서울대 음대 교수 음악회」에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金회장이 김치냉장고를, 金正圭(60년 音大卒)동문 등이 다양한 경품을 협찬했다.

## 체육교육과

### 「체우회」 장학금 지급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李康法)는 지난 3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모교 교수, 재학생 및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신입생 환영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모교 鄭哲秀학과의 교수 및 재학생 소개에 이어 金東進교수는 김대환·변경호(3학년)군에게 「체우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 모임인 「서울시 지부 체우회」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영어영문학과

### 柳 津동문 1억 쾌척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申禹植)는 지난 3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새천년 민주당 韓光玉대표, 朴尙植 前외교 안보연구원장, 조선일보 宋洋民 경제과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申회장은 이날 참석한 50학번부터 95학번까지의 선후배동문들을 소개했으며, 지난 22년간 학과 행정실에서 모교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柳寬瑛교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모교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여해온 (주)풍산 柳 津(83년卒)회장이 이날 1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 정치·외교학과

### 남북관계 세미나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朴鍾圭)는 지난 3월 19일 소공동 롯데호텔 벨부룸에서 具範謨 전임 회장, 金聖悅 前동아일보 사장, 南時旭 前문화일보 사장, LG경제연구원 鄭永儀회장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인 林東源(61년 文理大卒)동문이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 전기동문회

### 4월 24일 정기총회

전기동문회(회장 金世鍾)는 오는 4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선릉역 상록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1794)

## 치과대학

### 4월 25일 정기총회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梁源植)는 오는 4월 25일 오후 7시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제1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42-7082)

## 사범대학

### 장학금 1천5백만원 전달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璣教)는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의실에서 화학교육과 李相珍동창회장, 체육교육과 李康法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李회장은 축사를 통해 장학생들에게 『여러 선배동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장학금이니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뜻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용해주시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 학과동창회에서 모금한 장학금으로 15명의 재학생들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모교 禹漢鎔교무부학장은 격려사에서 『모교를 사랑하는 동창회의 간절한 마음에 큰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후배들이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받은 혜택을 다시 환원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경영대학원

### 신입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熙)는 지난 3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경영대학원 학장실에서 朴建豪부회장, 모교 趙東成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禹회장은 모교 신입생

玄青薰군과 許芝英양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실력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농경제학과

### 신임 회장에 李哲雨동문 선출

농경제학과동창회(회장 鄭容奎)는 지난 3월 18일 선릉역 상록회관에서 농림부 金東泰장관, 金周浩 前농림부 장관, 농수산물공사 許信行사장, 姜正一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姜洙基식품개발연구원장, 모교 교수 및 재학생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에 李哲雨(65년卒·롯데리아 사장)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감사는 연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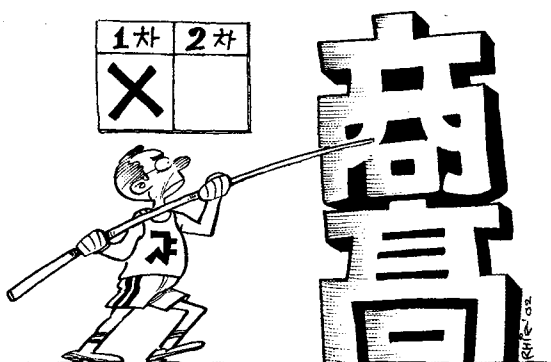
신임 李회장은 10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千冀吉(61년卒)동문과 전임 鄭회장에게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올해의 「자랑스런 동문상」에 선정된 농림부 金東泰(66년卒)장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모교 金完培학부장은 학과현황을 소개하며 모교 발전기금에 많은 지원을 해준 선후배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만평

李元馥



## f 동 정

## 수 상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학  
원 이사장·本  
會 顧問)=지  
난 3월 14일  
교육인적자원  
부 대회의실에서 사학재단 운  
영의 모범을 보인 공로로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  
당그룹 회장)  
=지난 3월 20  
일 삼성동 코  
엑스에서 열린  
제2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申瓚秀(61년 商大卒·한국공  
인회계사회장)  
=지난 3월 4  
일 제36회 납  
세자의 날 기념  
식에서 우리 나  
라 선진세계 구  
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은탑산업  
훈장을 받음.

▲姜聖模(17기 AMP·린나이코  
리아 회장)=  
지난 3월 20일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린 제  
2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李世洛(45기 AMP·대원건업  
대표)=지난 3  
월 4일 제36회  
납세자의 날 기  
념식에서 재경  
부 장관상을 받  
음.

## 이동·선임

▲吳應瑞(47년 齒大卒·前서울  
치과의사회장)  
=지난 3월 19  
일 한국치과원  
로 鶴壽會 회장  
에 선임됨.

▲趙 淳(49년 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지난 3월 26일 사  
단법인 안중근의사 숭모회 제7  
대 이사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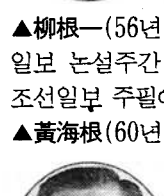
▲魚允培(58년 法大卒·前송실  
대 총장)=지난 4월 1일 한국벤  
처기업협회 벤처연구원 초대 원  
장에 취임함.

▲李仁子(59년 家政大卒·前건  
국대 교수)=  
지난 3월 1일  
서경대 석좌교  
수에 선임됨.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3월 19일 한국  
기자협회 한국  
기자상 심사위  
원에 위촉됨.



▲朴日在(59년 法大卒·한국평  
생교육기구 이  
사장)=최근  
대한대권도연  
맹 총재에 취임  
함.



▲柳根一(56년 文理大入·조선  
일보 논설주간)=지난 3월 5일  
조선일보 주필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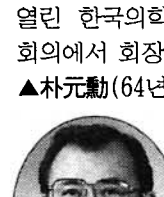
▲黃海根(60년 工大卒·동일기  
술공사 회장)  
=지난 2월 26  
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이사  
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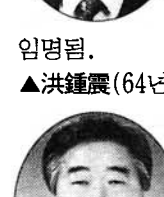
▲李敦熙(60년 師大卒·모교 교  
육학과 교수)  
=최근 한국사  
회과학연구협  
의회 제14대  
회장에 추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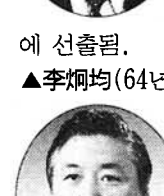
▲安秉勳(61년 法大卒·조선일  
보 부사장)=  
지난 3월 5일  
조선일보 대표  
이사 부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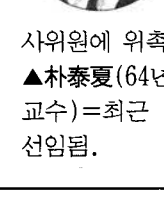
▲朴 昇(61년 商大卒·중앙대  
명예교수)=지  
난 3월 19일  
한국은행 총재  
에 내정됨.



▲洪昌基(61년 醫大卒·서울중  
앙병원장)=최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학교육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됨.



▲朴元勳(64년 工大卒·한국과  
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지  
난 3월 14일  
국무총리실 산  
하 산업기술연  
구회 이사장에  
임명됨.



▲洪鍾震(64년 農大卒·한국농  
지개발연구소  
이사)=지난 2  
월 23일 한국  
농어업토목기  
술사회 총회  
에서 제8대 회  
장에 선출됨.

▲尹汝民(64년 商大卒·美Seton  
Hall대 국제금  
융교수)=최근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뉴욕본부 학술고문  
에 선임됨.

▲尹永錫(64년 商大卒·두산중  
공업 사장)=  
지난 3월 24일  
두산중공업 대  
표이사 부회  
장에 선임됨.

▲劉承三(65년 文理大卒·前중  
앙일보 논설고문)=지난 3월  
13일 대한매일신보사 주주총회  
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敏燮(65년 文理大卒·前문  
화체육부 장관)=지난 3월 7일  
한국골프장사업협회 상임고문에  
위촉됨.

▲洪京子(66년 看護大卒·모교  
간호대학장)=최근 서울시 간호  
사회 제30대 회장에 선출됨.

▲吳 明(66년 工大卒·前동아  
일보 회장)=  
지난 3월 15일  
제10대 아주대  
총장에 취임  
함.

▲尹德重(68년 師大卒·경남대  
교수)=지난 3  
월 1일 경남대  
문과대학장 겸  
인문과학연구  
소장에 선임  
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  
장·本報 論說  
委員)=지난 3  
월 19일 한국  
기자협회 한국  
기자상 심사위  
원에 위촉됨.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  
외대 겸임교  
수)=지난 3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방송기자  
클럽 제6대 회  
장에 선출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  
반도체 비서실  
장 겸 부사장·  
중앙대 겸임교  
수)=지난 3월  
15일 아남반도  
체 비서실장 겸  
사장에 선임됨.

▲姜天錫(76년 社會大卒·조선  
일보 논설위  
원·本報 論說  
委員)=지난 3  
월 5일 조선일  
보 논설위원실  
장에 선임됨.

▲洪錫柱(76년 經營大卒·조흥  
은행 상무)=  
지난 3월 12일  
조흥은행장에  
선임됨.

▲朴炳槿(94년 大學院卒)=최  
근, 경남 의령  
군에 위치한 마  
산대 전통약재  
개발과 교수로  
부임함.

## 편집주간석

##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데...

20세기 초까지 서구 경제학의 근간논리를 지배해온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에 정부의 간섭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동창회에도 국내외에 걸쳐 20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  
다.

동창회 제19대 회장으로 林光洙동문을 합의 추대·선임하는 데에도  
「보이는 손」, 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한 바 있  
다.

차체에 생각해 보건데, 동창회라는 시장수요는 모교발전과 동문결속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은 이러한  
서비스를 충당하고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장학사업을 비롯한 모교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동창회관 신관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자원도 모아야 한다.

이러한 동창회의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충족되기 위해서는 20만 서  
울대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으로 나와야 한다.

20만 서울대인의 「보이는 손」으로 무엇을 못하며, 무엇을 못 이루랴.



▲鄭在善(97년 生活科學大卒)  
=지난해 UC  
Berkeley 법대  
를 졸업하고 현  
재 뉴욕의 법률  
회사 데베보이  
스-프림톤에  
서 변호사로 활동 중임. 부친은  
모교 치대 구강내과 진단학교실  
鄭聖昌(67년 齒大卒)교수.



▲李義鉉(20기 AIP·대일특수강  
대표)=지난 3월 1일 대림대학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돼 신학기부터 산업공학개  
론을 강의함.

## 행사·출간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  
건 회장·충북  
장학회 이사  
장·本會 會長)  
=지난 3월 23  
일 세종호텔  
은하수홀에서  
충북출신 우수대학생 10명에게  
2002년도 1학기 장학금을 전달  
함.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사회포럼 회  
장)=지난 3월  
27일 롯데호텔  
가네트룸에서  
광운대 韓洪錫  
교수를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가」를 주제로 제27회 조찬특별  
강연회를 가짐.

▲金福文(51년 文理大入·충북  
대 명예교수·  
한국어 영어식  
로마자 표기학  
회장)=지난 3  
월 4일 한국언  
론재단 매화홀

에서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  
기법」출간기념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  
大同窓會會長)=  
지난 3월 6일  
부터 16일까지  
갤러리 우덕에  
서 朴淑姬(62  
년 美大卒)·金芝希(63년 美大  
卒)·丁玉蘭(66년 美大卒)·崔英  
子(67년 美大卒)동문 등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자신의 조형세계  
를 구축해 나가는 33인의 작가  
들을 초청, Mixed-Media전을  
개최함.

에서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  
기법」출간기념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  
大同窓會會長)=  
지난 3월 6일  
부터 16일까지  
갤러리 우덕에  
서 朴淑姬(62  
년 美大卒)·金芝希(63년 美大  
卒)·丁玉蘭(66년 美大卒)·崔英  
子(67년 美大卒)동문 등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자신의 조형세계  
를 구축해 나가는 33인의 작가  
들을 초청, Mixed-Media전을  
개최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  
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3월 26일 하얏  
트호텔 로터스  
룸에서 李衍澤  
2002 월드컵조  
직위 공동위원장을 초청, 「월드  
컵과 국가발전 과제」라는 주제  
로 제97회 정책토론회를 가짐.

▲李錫均(55년 商大卒·前교보  
투자자문 사  
장)=지난 3월  
2일 신촌 놀부  
집에서 수필평  
론집 「현명한  
선택」출간간  
담회를 가짐.

▲金后蘭(53년 師大入·「문학의  
집·서울」이사  
장)=지난 3월  
6일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한  
옥마을에서 문  
인들이 남북통  
일 기원과 월드컵 성공기원을  
붓글씨로 쓴 글연 날리기 대회  
를 개최함.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  
언론인포럼 회  
장)=지난 3월  
14일 한국언론  
재단 매화홀에  
서 李洪九(53  
년 法大入) 前  
국무총리를 초청, 「세계화와 민

국무총리를 초청, 「세계화와 민

국무총리를 초청, 「세계화와 민

국무총리를 초청, 「세계화와 민



#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1년 12월 28일~2002년 2월 21일·一般: 2001년 12월 28일~2002년 2월 21일〉

## 평생회비

▲고광빈(66년 工大卒)=20만원  
▲김재현(96년 工大卒)=20만원

## 이 사

### ◇社會科學大學

▲이재건<sup>77</sup> 前한나라당총재보좌역

### ◇工科大学

▲곽은영<sup>69</sup> 대건종합건축 사장  
▲김규섭<sup>71</sup> 일진다이아몬드 대표  
▲김대웅<sup>67</sup> 형인상사 대표  
▲김연식<sup>61</sup> SK유경회 부사장  
▲김영기<sup>84</sup> 삼성전자 상무  
▲김영수<sup>64</sup> 쌍용ENG 사장  
▲김정수<sup>73</sup> 다다물산 사장  
▲김정우<sup>61</sup> 우미자원기술사 대표  
▲목영일<sup>60</sup> 아주대 교수  
▲박근룡<sup>68</sup> 대한알루미늄 부사장  
▲박상률<sup>77</sup>  
▲서석천<sup>57</sup> 한국전력기술  
▲송신현<sup>67</sup> 삼정종합 소장  
▲오철석<sup>59</sup> 삼능건설 상무  
▲유홍렬<sup>64</sup> 유원화성 대표  
▲이규재<sup>71</sup> 삼성물산 전무  
▲이성관<sup>72</sup> 한울건축 대표  
▲이승기<sup>76</sup> 삼능건설 대표  
▲이준상<sup>71</sup> 삼창기술 사장  
▲이홍준<sup>71</sup> 화성산업 대표  
▲정성민<sup>65</sup> 신동아정공 대표  
▲정형수<sup>63</sup> 동부제강 부사장  
▲하진규<sup>64</sup>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방교<sup>55</sup> 부천전문대 학장  
▲한홍희<sup>65</sup> 가나검정평가법인  
▲황만세<sup>73</sup> 미네르바 대표

### ◇農科大学

▲곽지상<sup>67</sup> 수안보 온천장 사장  
▲권대욱<sup>73</sup> 콘스트라넛닷컴 대표  
▲김유인<sup>70</sup> (주)미성  
▲이내수<sup>64</sup> 농민신문 사장  
▲이순욱<sup>74</sup>  
▲이치섭<sup>62</sup> 前ROSI MEX 대표  
▲허신행<sup>66</sup>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홍현주<sup>77</sup> 삼풍특수금속 대표

### ◇文理科大學

▲강운태<sup>72</sup> 국회의원  
▲김시중<sup>55</sup> 과총연합회 회장  
▲이성구<sup>72</sup> 홍익대 교수  
▲이영일<sup>64</sup> 前국회의원  
▲이해찬<sup>72</sup> 국회의원  
▲장내식<sup>69</sup>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정영의<sup>59</sup> LG경제연구원 회장  
▲조 은<sup>69</sup> 동국대 교수  
▲최승부<sup>64</sup> 법무법인 정현 고문  
▲한화갑<sup>63</sup> 국회의원

### ◇法科大学

▲구운회<sup>63</sup> 세무사

▲김대영<sup>78</sup> 교보생명 이사  
▲김명중<sup>65</sup>  
▲김승규<sup>68</sup> 대검찰청 차장  
▲김용균<sup>64</sup> 국회의원  
▲김의재<sup>62</sup>  
▲김창엽<sup>68</sup> 변호사  
▲김창홍<sup>60</sup>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나정욱<sup>64</sup> 변호사  
▲문희상<sup>68</sup> 국회의원  
▲박상선<sup>68</sup> 변호사  
▲박연철<sup>72</sup> 변호사  
▲박해성<sup>78</sup>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경숙<sup>54</sup> 인하대 명예교수  
▲백영엽<sup>77</sup> 변호사  
▲백창훈<sup>80</sup>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형석<sup>59</sup> 대우 상담역  
▲신 건<sup>63</sup> 국가정보원장  
▲안강민<sup>64</sup> 변호사  
▲안종윤<sup>55</sup> 한양대 교수  
▲윤경희<sup>69</sup> 베어링부라더스 이사  
▲윤주원<sup>55</sup> 덕양산업 대표  
▲이논규<sup>65</sup> 법무사  
▲이재기<sup>74</sup> 변호사  
▲이재성<sup>73</sup> 두산중공업 이사  
▲이종석<sup>74</sup> LG카드 부사장  
▲임상순<sup>73</sup> 변호사  
▲임성수<sup>74</sup> 수출입은행 부장  
▲장기욱<sup>61</sup> 변호사  
▲장세두<sup>63</sup> 변호사  
▲전용학<sup>77</sup> 국회의원  
▲정연조<sup>59</sup> 변호사  
▲정용인<sup>64</sup> 변호사  
▲정태웅<sup>62</sup> 변호사  
▲최세관<sup>58</sup> 한전 상임고문

### ◇師範大學

▲구본형<sup>79</sup> 서울고  
▲김선환<sup>78</sup> 경영건설터트  
▲김준문<sup>52</sup> 우리모두복지회장  
▲문용린<sup>71</sup> 前교육부 장관  
▲박남기<sup>55</sup> 前고적도서관장  
▲박수용<sup>55</sup> 진주시교육청 교육장  
▲유덕준<sup>64</sup> 삼척산업대 교수  
▲유의식<sup>78</sup> 국립교육평가원  
▲이성목<sup>71</sup> 모교 교수  
▲정선호<sup>79</sup> 세화여고  
▲조용복<sup>60</sup> 서울사대부중 교장

### ◇商科大學

▲김종남<sup>64</sup> 동남기업 회장  
▲원호출<sup>66</sup> 前대구투자금융 회장  
▲조의진<sup>65</sup> 호진위더스 사장  
▲최선욱<sup>75</sup> 외환은행 부부장

### ◇獸醫科大學

▲김만영<sup>54</sup> 경미농장 대표  
▲김순무<sup>69</sup> 한국아쿠르트 사장  
▲한기영<sup>60</sup>

### ◇藥學大學

▲김동춘<sup>59</sup> 前대원제약 부회장  
▲김영호<sup>58</sup> 前제주도발전연구원장  
▲나례연<sup>76</sup> 효원약국  
▲노환성<sup>61</sup> 서울중앙병원약제부장  
▲윤효선<sup>57</sup> 삼선교약국  
▲이해정<sup>49</sup> 운무약국

### ◇醫科大學

▲김세엽<sup>76</sup> 외과의원장  
▲박영원<sup>76</sup> 이비인후과의원장  
▲정창생<sup>66</sup> 정창생의원장  
▲주정화<sup>56</sup> 고대안암병원신경외과  
▲추연명<sup>79</sup> 해화진단방사선과원장

### ◇齒科大學

▲강구한<sup>65</sup> 강구한치과의원장  
▲김기혁<sup>65</sup> 김기혁치과의원장  
▲박종만<sup>66</sup> 박치과의원장  
▲이재명<sup>69</sup> 이재명치과  
▲임형순<sup>70</sup> 임치과의원장

### ◇大學院

▲김홍렬<sup>84</sup> 증권거래소 차장  
▲장경찬<sup>80</sup> 변호사

### ◇保健大學院

▲이명화<sup>60</sup> 핵전예방한국 의사연맹

### ◇司法大學院

▲설경진<sup>69</sup> 변호사

### ◇行政大學院

▲고준영<sup>62</sup> 영림기업공사 대표  
▲김두성<sup>82</sup> 병역정책연구 이사장  
▲김용길<sup>68</sup> 동방서플라이 대표  
▲신윤식<sup>70</sup> 하나로통신 사장  
▲정영섭<sup>68</sup> 광진구청장  
▲현경병<sup>87</sup> 지식문화재단 이사장

### ◇環境大學院

▲이재익<sup>77</sup> 도화종합기술 전무

### ◇최고경영자과정

▲박상규<sup>91</sup> 국회의원

### ◇국가정책과정

▲최재승<sup>38</sup> 국회의원

## 일 반

### ◇人文大學

▲광고남<sup>80</sup> ▲권유현<sup>81</sup> ▲김기만<sup>95</sup>  
▲김남인<sup>78</sup> ▲김사인<sup>80</sup> ▲김성연<sup>88</sup>  
▲김성우<sup>78</sup> ▲김종훈<sup>89</sup> ▲박정하<sup>84</sup>  
▲박태진<sup>84</sup> ▲박영욱<sup>91</sup> ▲박흥로<sup>87</sup>  
▲윤상필<sup>91</sup> ▲윤종범<sup>81</sup> ▲이강재<sup>87</sup>  
▲이장호<sup>86</sup> ▲이정수<sup>91</sup> ▲이종수<sup>90</sup>  
▲이효심<sup>89</sup>

### ◇社會科學大學

▲강경식<sup>82</sup> ▲강명식<sup>77</sup> ▲강영철<sup>80</sup>  
▲강영호<sup>96</sup> ▲기 춘<sup>84</sup> ▲김광순<sup>93</sup>  
▲김대휴<sup>88</sup> ▲김동환<sup>66</sup> ▲김범조<sup>78</sup>  
▲김보균<sup>90</sup> ▲김수원<sup>96</sup> ▲김신근<sup>94</sup>  
▲김영욱<sup>90</sup> ▲김용환<sup>82</sup> ▲김유환<sup>87</sup>  
▲김정국<sup>94</sup> ▲김한국<sup>97</sup> ▲김형민<sup>80</sup>  
▲노기선<sup>92</sup> ▲노홍석<sup>87</sup> ▲도현순<sup>89</sup>  
▲박 진<sup>87</sup> ▲박경재<sup>78</sup> ▲박화진<sup>85</sup>  
▲배석주<sup>91</sup> ▲배은경<sup>89</sup> ▲사공진<sup>79</sup>  
▲성백진<sup>86</sup> ▲손영준<sup>93</sup> ▲송동섭<sup>85</sup>

▲송수환<sup>95</sup> ▲송영규<sup>91</sup> ▲안석환<sup>85</sup>  
▲안택순<sup>86</sup> ▲어수선<sup>87</sup> ▲엄상욱<sup>93</sup>  
▲엄태중<sup>85</sup> ▲유화렬<sup>77</sup> ▲유희락<sup>78</sup>  
▲윤영찬<sup>90</sup> ▲윤혜신<sup>90</sup> ▲이근승<sup>89</sup>  
▲이동채<sup>90</sup> ▲이병호<sup>82</sup> ▲이상훈<sup>84</sup>  
▲이성만<sup>81</sup> ▲이원수<sup>85</sup> ▲이윤경<sup>88</sup>  
▲이인수<sup>79</sup> ▲이장영<sup>78</sup> ▲이재오<sup>93</sup>  
▲이재홍<sup>89</sup> ▲이종훈<sup>85</sup> ▲임일섭<sup>87</sup>  
▲임찬익<sup>85</sup> ▲장세진<sup>84</sup> ▲정시영<sup>89</sup>  
▲제민호<sup>86</sup> ▲조석근<sup>81</sup> ▲조성호<sup>85</sup>  
▲조운숙<sup>94</sup> ▲전민근<sup>97</sup> ▲최병선<sup>81</sup>  
▲최완수<sup>83</sup> ▲최대진<sup>96</sup> ▲하태민<sup>94</sup>  
▲한 신<sup>89</sup> ▲한상식<sup>79</sup> ▲허원제<sup>78</sup>  
▲황성면<sup>91</sup> ▲황제훈<sup>93</sup>

### ◇自然科學大學

▲공향식<sup>85</sup> ▲김성훈<sup>94</sup> ▲김신원<sup>86</sup>  
▲김진곤<sup>87</sup> ▲박기현<sup>95</sup> ▲박상일<sup>81</sup>  
▲송세안<sup>79</sup> ▲송준하<sup>88</sup> ▲유병수<sup>81</sup>  
▲윤석훈<sup>87</sup> ▲이경호<sup>79</sup> ▲이성호<sup>96</sup>  
▲이인규<sup>76</sup> ▲이재원<sup>83</sup> ▲전태식<sup>78</sup>  
▲정희수<sup>85</sup> ▲전무영<sup>85</sup> ▲최윤석<sup>89</sup>  
▲최진우<sup>79</sup> ▲홍성출<sup>96</sup>

### ◇家政大學

▲김경옥<sup>73</sup> ▲방남순<sup>74</sup> ▲백선자<sup>64</sup>  
▲백완희<sup>72</sup> ▲상정기<sup>60</sup> ▲신은철<sup>77</sup>  
▲염명순<sup>78</sup> ▲오현숙<sup>72</sup> ▲윤기숙<sup>72</sup>  
▲윤혜원<sup>68</sup> ▲이재선<sup>96</sup> ▲조효영<sup>77</sup>  
▲홍산운<sup>62</sup>

### ◇看護大學

▲김숙영<sup>93</sup> ▲김형록<sup>63</sup> ▲박계순<sup>87</sup>  
▲이명숙<sup>81</sup> ▲장영순<sup>88</sup> ▲정진선<sup>86</sup>  
▲조원자<sup>60</sup> ▲주혜경<sup>88</sup> ▲한경애<sup>75</sup>

### ◇經營大學

▲구본수<sup>96</sup> ▲김명훈<sup>97</sup> ▲김성민<sup>92</sup>  
▲김영규<sup>94</sup> ▲김주희<sup>78</sup> ▲김현철<sup>85</sup>  
▲남연우<sup>87</sup> ▲남중수<sup>79</sup> ▲박종환<sup>95</sup>  
▲배경섭<sup>84</sup> ▲서동식<sup>81</sup> ▲신윤수<sup>80</sup>  
▲여영종<sup>80</sup> ▲이영렬<sup>86</sup> ▲이익찬<sup>90</sup>  
▲이중석<sup>90</sup> ▲정성원<sup>88</sup> ▲정승환<sup>88</sup>  
▲조성운<sup>80</sup> ▲최기상<sup>94</sup> ▲최현정<sup>92</sup>  
▲홍유진<sup>89</sup> ▲홍전기<sup>90</sup>

### ◇工科大学

▲강석호<sup>95</sup> ▲강세훈<sup>75</sup> ▲강인엽<sup>85</sup>  
▲강희동<sup>71</sup> ▲강희창<sup>87</sup> ▲고 건<sup>74</sup>  
▲고동일<sup>79</sup> ▲고성훈<sup>89</sup> ▲고왕인<sup>70</sup>  
▲고준수<sup>76</sup> ▲고준수<sup>88</sup> ▲권경덕<sup>69</sup>  
▲권명세<sup>77</sup> ▲권형석<sup>56</sup> ▲기승준<sup>57</sup>  
▲김 철<sup>92</sup> ▲김갑진<sup>75</sup> ▲김광택<sup>64</sup>  
▲김규덕<sup>89</sup> ▲김낙명<sup>80</sup> ▲김도선<sup>76</sup>  
▲김동주<sup>57</sup> ▲김동춘<sup>90</sup> ▲김동휘<sup>79</sup>  
▲김란수<sup>89</sup> ▲김석근<sup>57</sup> ▲김선재<sup>89</sup>  
▲김성대<sup>88</sup> ▲김성진<sup>77</sup> ▲김승배<sup>83</sup>  
▲김영걸<sup>83</sup> ▲김영섭<sup>76</sup> ▲김영수<sup>66</sup>  
▲김영오<sup>89</sup> ▲김윤종<sup>97</sup> ▲김의선<sup>70</sup>  
▲김인수<sup>79</sup> ▲김일중<sup>75</sup> ▲김정기<sup>97</sup>  
▲김정선<sup>85</sup> ▲김종식<sup>84</sup> ▲김종욱<sup>87</sup>  
▲김종진<sup>77</sup> ▲김주호<sup>91</sup> ▲김준동<sup>78</sup>  
▲김지희<sup>99</sup> ▲김진규<sup>66</sup> ▲김재호<sup>73</sup>  
▲김태문<sup>74</sup> ▲김학준<sup>79</sup> ▲김현욱<sup>75</sup>  
▲김형진<sup>57</sup> ▲김형환<sup>93</sup> ▲김홍선<sup>83</sup>  
▲김환규<sup>83</sup> ▲김희수<sup>92</sup> ▲나영재<sup>96</sup>

▲나중재<sup>96</sup> ▲남궁정<sup>86</sup> ▲노병환<sup>80</sup>  
▲마상덕<sup>73</sup> ▲문용삼<sup>94</sup> ▲문재창<sup>73</sup>  
▲박건중<sup>66</sup> ▲박경현<sup>66</sup> ▲박광현<sup>78</sup>  
▲박국배<sup>65</sup> ▲박기연<sup>72</sup> ▲박기현<sup>78</sup>  
▲박동환<sup>71</sup> ▲박병준<sup>82</sup> ▲박성구<sup>71</sup>  
▲박승웅<sup>65</sup> ▲박승준<sup>60</sup> ▲박영욱<sup>66</sup>  
▲박완기<sup>80</sup> ▲박일훈<sup>93</sup> ▲박재성<sup>66</sup>  
▲박재우<sup>78</sup> ▲박종철<sup>50</sup> ▲박지형<sup>79</sup>  
▲박지훈<sup>95</sup> ▲박현익<sup>79</sup> ▲박희수<sup>68</sup>  
▲백선욱<sup>66</sup> ▲변경석<sup>97</sup> ▲부창렬<sup>61</sup>  
▲서세현<sup>69</sup> ▲서형준<sup>91</sup> ▲성연찬<sup>60</sup>  
▲성정길<sup>76</sup> ▲손명환<sup>52</sup> ▲송낙경<sup>81</sup>  
▲송재준<sup>93</sup> ▲신상희<sup>64</sup> ▲신정건<sup>89</sup>  
▲신희승<sup>75</sup> ▲심형보<sup>58</sup> ▲심형진<sup>65</sup>  
▲안 룡<sup>65</sup> ▲안경모<sup>81</sup> ▲안기주<sup>67</sup>  
▲안선규<sup>56</sup> ▲안승원<sup>75</sup> ▲안재목<sup>91</sup>  
▲양상현<sup>53</sup> ▲양윤식<sup>87</sup> ▲양인범<sup>96</sup>  
▲양종화<sup>77</sup> ▲어 준<sup>56</sup> ▲연명흠<sup>88</sup>  
▲오수경<sup>80</sup> ▲오승모<sup>76</sup> ▲오희근<sup>85</sup>  
▲옥기열<sup>94</sup> ▲우육현<sup>74</sup> ▲우제걸<sup>65</sup>  
▲원유철<sup>63</sup> ▲원진희<sup>54</sup> ▲유대희<sup>71</sup>  
▲유박행<sup>67</sup> ▲유재현<sup>73</sup> ▲유창석<sup>99</sup>  
▲윤 백<sup>82</sup> ▲윤필중<sup>89</sup> ▲이 진<sup>64</sup>  
▲이건이<sup>79</sup> ▲이건창<sup>70</sup> ▲이경식<sup>93</sup>  
▲이근수<sup>59</sup> ▲이근욱<sup>88</sup> ▲이기승<sup>72</sup>  
▲이기영<sup>64</sup> ▲이덕원<sup>79</sup> ▲이병수<sup>72</sup>  
▲이병식<sup>82</sup> ▲이성민<sup>93</sup> ▲이성호<sup>89</sup>  
▲이성홍<sup>73</sup> ▲이승국<sup>83</sup> ▲이영배<sup>74</sup>  
▲이왕현<sup>85</sup> ▲이용훈<sup>55</sup> ▲이원순<sup>74</sup>  
▲이원호<sup>95</sup> ▲이원홍<sup>81</sup> ▲이인재<sup>97</sup>  
▲이인환<sup>72</sup> ▲이임택<sup>65</sup> ▲이장하<sup>91</sup>  
▲이재락<sup>76</sup> ▲이정우<sup>65</sup> ▲이정태<sup>69</sup>  
▲이종대<sup>87</sup> ▲이종민<sup>92</sup> ▲이종훈<sup>93</sup>  
▲이지복<sup>68</sup> ▲이창무<sup>86</sup> ▲이태형<sup>76</sup>  
▲이현우<sup>85</sup> ▲이흥기<sup>67</sup> ▲이홍식<sup>75</sup>  
▲이화성<sup>82</sup> ▲이희영<sup>80</sup> ▲임동웅<sup>66</sup>  
▲임두호<sup>76</sup> ▲임원식<sup>89</sup> ▲임주섭<sup>87</sup>  
▲장근무<sup>87</sup> ▲장길주<sup>84</sup> ▲장충근<sup>73</sup>  
▲전동완<sup>60</sup> ▲전동각<sup>59</sup> ▲정동섭<sup>58</sup>  
▲정무조<sup>61</sup> ▲정수철<sup>62</sup> ▲정순착<sup>63</sup>  
▲정연호<sup>72</sup> ▲정영운<sup>77</sup> ▲정의효<sup>57</sup>  
▲정자철<sup>82</sup> ▲정지수<sup>70</sup> ▲정철진<sup>81</sup>  
▲정해승<sup>85</sup> ▲정현만<sup>62</sup> ▲조남산<sup>70</sup>  
▲조덕상<sup>71</sup> ▲조순교<sup>78</sup> ▲조용주<sup>77</sup>  
▲조익표<sup>82</sup> ▲조창호<sup>76</sup> ▲조태원<sup>82</sup>  
▲주덕영<sup>66</sup> ▲지규억<sup>62</sup> ▲진안섭<sup>79</sup>  
▲채성수<sup>89</sup> ▲최동재<sup>65</sup> ▲최문철<sup>65</sup>  
▲최승관<sup>77</sup> ▲최원경<sup>89</sup> ▲최진영<sup>82</sup>  
▲최대선<sup>76</sup> ▲최형남<sup>70</sup> ▲최희준<sup>93</sup>  
▲하영식<sup>75</sup> ▲한창환<sup>61</sup> ▲한희서<sup>65</sup>  
▲허남섭<sup>79</sup> ▲허환호<sup>81</sup> ▲현창현<sup>82</sup>  
▲홍성영<sup>90</sup> ▲홍성표<sup>64</sup> ▲홍용남<sup>71</sup>  
▲황동환<sup>85</sup> ▲황재영<sup>85</sup> ▲황재훈<sup>96</sup>  
▲황정연<sup>80</sup>

### ◇農科大学

▲구기완<sup>96</sup> ▲권성기<sup>89</sup> ▲김경수<sup>95</sup>  
▲김기선<sup>78</sup> ▲김동환<sup>74</sup> ▲김상철<sup>53</sup>  
▲김양재<sup>83</sup> ▲김영팔<sup>69</sup> ▲김영호<sup>77</sup>  
▲김응겸<sup>63</sup> ▲김정호<sup>78</sup> ▲박근배<sup>79</sup>  
▲박세원<sup>97</sup> ▲박종민<sup>89</sup> ▲박종배<sup>67</sup>  
▲배인태<sup>77</sup> ▲서광섭<sup>83</sup> ▲성낙곤<sup>83</sup>  
▲송만종<sup>57</sup> ▲송승석<sup>63</sup> ▲송지은<sup>92</sup>  
▲신동린<sup>67</sup> ▲안관식<sup>66</sup> ▲안의성<sup>60</sup>  
▲양상홍<sup>66</sup> ▲엄태영<sup>57</sup> ▲우수정<sup>88</sup>  
▲우호길<sup>78</sup> ▲유동휘<sup>78</sup> ▲유영산<sup>68</sup>

▲유진춘71 ▲윤광렬88 ▲이 정97  
▲이광희75 ▲이근자67 ▲이민우80  
▲이상범82 ▲이상호77 ▲이재연55  
▲이재형70 ▲이창규89 ▲이태호78  
▲이해명61 ▲임원순77 ▲정병호69  
▲정은지96 ▲정재혁56 ▲정태성71  
▲조병준63 ▲조영희81 ▲채상목85  
▲최용석89 ▲홍순일67 ▲황인수83

◇文理科大學

▲구자성54 ▲김기선67 ▲김동진66  
▲김문성60 ▲김성미68 ▲김세중72  
▲김용표72 ▲김윤식60 ▲김의종70  
▲나형수66 ▲노남석55 ▲민재홍64  
▲박관운61 ▲박남열68 ▲박혜린69  
▲백승홍73 ▲손현래64 ▲송 관65  
▲송기일59 ▲신원선66 ▲신현목66  
▲심양홍71 ▲안광윤68 ▲양영진74  
▲오상태69 ▲오상훈74 ▲오성국59  
▲오종발72 ▲왕중일66 ▲유덕상72  
▲윤건혁71 ▲윤병석57 ▲윤용식64  
▲이강준64 ▲이광호75 ▲이병훈62  
▲이성화62 ▲이윤백66 ▲이우동54  
▲이주영66 ▲이창구72 ▲이충희58  
▲이택순75 ▲장문호61 ▲장화자55  
▲정규용64 ▲정근모59 ▲정창렬63  
▲조세형75 ▲최광선68 ▲최상순70  
▲허중경72 ▲홍승오58 ▲황경자64  
▲황보순61

◇美術大學

▲최명룡70 ▲최인숙79 ▲최정희63  
▲강재희88 ▲강정기60 ▲강태성54  
▲권기윤81 ▲권성봉85 ▲김건호94  
▲김병수87 ▲김선미93 ▲김성천86  
▲김영주70 ▲김물림91 ▲남상아97  
▲박윤남93 ▲배정숙78 ▲배정숙79  
▲안금희89 ▲안신영88 ▲안재후56  
▲윤기언96 ▲이상갑70 ▲이상은90  
▲이승윤97 ▲이영재83 ▲이인철87  
▲이재영91 ▲정민수92 ▲정상곤87  
▲정정식92 ▲조병섭85 ▲지승진92

◇法科大學

▲성문용67 ▲안영준59 ▲유시동61  
▲이근화76 ▲최순철59 ▲최승민63  
▲최태식76 ▲경수근63 ▲권용희55  
▲권일웅69 ▲김민석64 ▲김용갑76  
▲김우현56 ▲김주영87 ▲김지수85  
▲김찬영50 ▲김철한84 ▲김형탁97  
▲김형태80 ▲박종흥66 ▲박준호72  
▲박태경85 ▲방계성64 ▲변재욱56  
▲서영태63 ▲설경진65 ▲양창수74  
▲엄진현55 ▲오병두72 ▲오연근80  
▲유승남86 ▲유재만85 ▲이강남72  
▲이경우83 ▲이광민87 ▲이동식61  
▲이병돈80 ▲이상기63 ▲이세형73  
▲이양원82 ▲이용수71 ▲이용희64  
▲이창범57 ▲이태화79 ▲이홍길64  
▲임태성76 ▲임태수60 ▲장원관80  
▲정상명72 ▲정인용57 ▲지승원72  
▲채수열73 ▲최원식85 ▲허진호68  
▲황재택66

◇師範大學

▲강길선57 ▲강종필81 ▲강학수71  
▲고경순65 ▲곽규호61 ▲국철호81  
▲권경홍39 ▲김 인72 ▲김광준62  
▲김기준63 ▲김동진66 ▲김영지66  
▲김영해78 ▲김옥청43 ▲김은숙55  
▲김은혜78 ▲김재호57 ▲김종경58  
▲김진철72 ▲김학관61 ▲김학찬69  
▲김한주63 ▲나귀수91 ▲남상인77  
▲노영희75 ▲박미숙88 ▲박신우64  
▲박아양73 ▲박영숙41 ▲박영준72

▲박재동80 ▲선우문숙43 ▲설홍수75  
▲송진웅83 ▲유영호62 ▲이명천76  
▲이석규70 ▲이성규61 ▲이용호77  
▲이우형53 ▲이원강61 ▲이정자55  
▲전옥순41 ▲정운택82 ▲정창권95  
▲조길현56 ▲조병두65 ▲조용훈86  
▲채영자65 ▲천세영81 ▲천희완78  
▲최신남65 ▲최종우76 ▲하정조68  
▲한갑수83 ▲한예석62 ▲홍운표58

◇商科大學

▲김선용72 ▲이수신70 ▲강웅식64  
▲곽태운72 ▲김갑수55 ▲김종철68  
▲김준현75 ▲박동진65 ▲박명배68  
▲박용기60 ▲박철원68 ▲서진석64  
▲성삼경70 ▲신광규59 ▲신석후62  
▲오규환67 ▲유방연68 ▲유한종74  
▲윤용한68 ▲이병선57 ▲이종연56  
▲이창웅65 ▲장덕렬75 ▲정성창66  
▲정현진63 ▲정형진75 ▲최병진74  
▲최진택65 ▲한정복70

◇獸醫科大學

▲김기홍85 ▲박호구67 ▲신대길67  
▲하태은84 ▲김창호57 ▲박근하80  
▲송회락74 ▲신상익59 ▲이양성62  
▲이종석57 ▲이종택74 ▲이종환59  
▲장광호85 ▲홍종해76

◇藥學大學

▲곽의종77 ▲구창모77 ▲권영재83  
▲권영환58 ▲김광식80 ▲김근환68  
▲김민정95 ▲김휘배65 ▲나현찬56  
▲노경희52 ▲박건구83 ▲박금남90  
▲유형종48 ▲윤 운67 ▲윤여상61  
▲윤용상82 ▲이은선82 ▲이정희91  
▲이형연81 ▲이훈자60 ▲임동수74  
▲임용완56 ▲임정은80 ▲정승혜97  
▲조균형78 ▲조영환75 ▲조흥렬82  
▲최진곤81 ▲한병훈56 ▲홍사황58  
▲홍성한80

◇音樂大學

▲김나정96 ▲김문자63 ▲김소화87  
▲김수희88 ▲김재원87 ▲김정규60  
▲김종미94 ▲목동균67 ▲박경서77  
▲박윤경95 ▲박정순60 ▲송정민91  
▲신영자67 ▲안소희85 ▲염각경59  
▲유승연89 ▲유형웅64 ▲윤현주71  
▲이광희93 ▲이선이88 ▲이신화93  
▲이연자63 ▲이지영88 ▲이진권80  
▲이해식69 ▲이희자75 ▲임동창70  
▲임정원87 ▲임창배80 ▲장경애72  
▲조영남64 ▲조주연93 ▲최영숙78  
▲최은실88 ▲황성욱95 ▲황윤영89

◇醫科大學

▲김명석68 ▲김삼용76 ▲김소연80  
▲김애경84 ▲김원원81 ▲김창협63  
▲김치환79 ▲김현영97 ▲김현집72  
▲박경수84 ▲박상윤79 ▲박순태71  
▲박종명76 ▲박진일65 ▲박효진96  
▲서정익61 ▲심정연89 ▲양문호65  
▲양희진88 ▲유영상79 ▲이광우76  
▲이남수48 ▲이미나62 ▲이영우60  
▲이윤우75 ▲이진수74 ▲이흥기81  
▲임수덕55 ▲임태환78 ▲장영길64  
▲장익열49 ▲조 준62 ▲조수철73  
▲최경호89 ▲한경일88 ▲한종은57  
▲현인규84 ▲홍승인85

◇齒科大學

▲김덕상66 ▲김두현85 ▲김문기73  
▲김석연74 ▲김정수89 ▲김화규67  
▲박경준79 ▲배현성71 ▲변인숙78

▲성철제70 ▲오성진79 ▲유태정72  
▲윤종숙62 ▲이광건79 ▲이명진79  
▲이상용88 ▲이영애63 ▲이유식80  
▲이주봉59 ▲이중희57 ▲이태호78  
▲장항진77 ▲전용구86 ▲정영주59  
▲정평구62 ▲제만희75 ▲최명진81  
▲최순규74 ▲한금형91 ▲허준석88  
▲홍성팔88 ▲황규동71 ▲황정태88

◇大學院

▲김복영72 ▲김우식88 ▲김재훈92  
▲박동준83 ▲안호준87 ▲이영주99  
▲이영하86 ▲지제근64 ▲최경희80  
▲최병래87 ▲최성우94

◇經營大學院

▲고희수75 ▲권영천67 ▲박원동74  
▲이강선72 ▲장영태69 ▲차윤석96  
▲최의목68

◇教育大學院

▲오영태72

◇保健大學院

▲구군회69 ▲김상룡82 ▲김순덕83  
▲김정희82 ▲양정희80 ▲이영준91

◇司法大學院

▲전도영70

◇新聞大學院

▲김자규71

◇行政大學院

▲강형욱82 ▲박완신79 ▲이종철73  
▲임종섭77 ▲한호선74

◇環境大學院

▲고재경95 ▲권 완78 ▲김경윤85  
▲김우현87 ▲김조전88 ▲김종일86  
▲김한수87 ▲김현석93 ▲김희병85  
▲민병욱81 ▲안은주94 ▲이만형83  
▲정영식75 ▲홍선관91

◇최고경영자과정

▲강상진30 ▲강성호33 ▲강운태48  
▲강혜숙47 ▲권승렬51 ▲김 반46  
▲김강정48 ▲김동엽6 ▲김병국51  
▲김진오50 ▲민태구13 ▲박건작47  
▲박근학51 ▲박기수49 ▲성영창26  
▲손태봉51 ▲안상수40 ▲오병제21  
▲우영열16 ▲우종보40 ▲원동진1  
▲유성규44 ▲유한덕50 ▲이경태31  
▲이명의38 ▲이병정8 ▲이상홍1  
▲이성규51 ▲이완근27 ▲이원복47  
▲이인정35 ▲이제환9 ▲이종규20  
▲이태호20 ▲이희상22 ▲임성규51  
▲장지랑10 ▲조길연46 ▲조병일25  
▲진영준51 ▲진창울29 ▲최등규51  
▲최종근44 ▲홍영의26 ▲황순구12

◇최고산업전략과정

▲강택명16 ▲김 희2 ▲김순태12  
▲김장근15 ▲김한구4 ▲박종호9  
▲신동철19 ▲심종덕15 ▲오충섭25  
▲이용우22 ▲이윤영24 ▲이재천23  
▲이준상15 ▲정기욱25 ▲전용수25  
▲현승기5 ▲현인주14

◇국가정책과정

▲강광희28 ▲강연국52 ▲김 집18  
▲김남용52 ▲김동주24 ▲김성민39  
▲김연화51 ▲김영일41 ▲김영준52  
▲김재호43 ▲김종화43 ▲김진성46  
▲김춘식41 ▲남문현50 ▲남상해37

▲민병섭32 ▲민태구20 ▲박명규40  
▲박인복47 ▲박재영46 ▲백갑중52  
▲백운열49 ▲서군석27 ▲손문창14  
▲신현대31 ▲안영기30 ▲안정남36  
▲오취영8 ▲원정부31 ▲유철호45  
▲이교용40 ▲이문용27 ▲이민복33  
▲이범창29 ▲이보규52 ▲이영수48  
▲이재복21 ▲이종채52 ▲이학동44  
▲이희상45 ▲장성자50 ▲전상덕52  
▲정남기32 ▲정완기52 ▲정운기52  
▲정하철52 ▲정홍식30 ▲조해월52  
▲지태욱20 ▲차영준52 ▲최승열18  
▲최홍열49 ▲한기호52

◇고급금융과정

▲강세환14 ▲김흥기4 ▲김홍범2  
▲변정섭14 ▲서상국9 ▲서학석10  
▲신경양5 ▲신완섭12 ▲신희우10  
▲안우진8 ▲우성택14 ▲윤수중10  
▲윤홍식4 ▲이상필15 ▲이종린16  
▲이판철3 ▲전민수12 ▲최실근13  
▲허 수6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준옥3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오선8 ▲김지영8 ▲박정호7  
▲이명희8 ▲이춘제5 ▲조미자2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문양환6 ▲신종화1 ▲이철규7

▲이현재7 ▲장창식6 ▲장현익5  
▲전창영5 ▲정필무1 ▲진영기4  
▲황상균5

◇보건의료정책관리자과정

▲곽광희8 ▲권기진8 ▲김기백8  
▲김봉기3 ▲김영권6 ▲김영식8  
▲김종길4 ▲김종필5 ▲김중형8  
▲김지영7 ▲김혜남8 ▲박선호8  
▲박영엽2 ▲박종규8 ▲박찬호6  
▲송상진3 ▲신혜원8 ▲안필준8  
▲양승권7 ▲오창록1 ▲유희탁6  
▲윤근배8 ▲윤영진7 ▲윤주선4  
▲이래원6 ▲이범용4 ▲이세규8  
▲이충섭8 ▲장상웅5 ▲장찬기8  
▲정관훈8 ▲정호용8 ▲조경미8  
▲조남열8 ▲조진희8 ▲조한준8  
▲최병덕8 ▲최종기6 ▲함 웅5

분 담 금

◇인도네시아지부 : 678, 415원

합 계 : 30,138,415원  
입회비 : 780,000원  
총 계 : 661,403,750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2년 1월 발금 회원 명단)

개 인

◇社會科學大學

▲한규진99

◇自然科學大學

▲문종호96 ▲손준익96

◇經營大學

▲홍영준94

◇工科大學

▲박연상88 ▲박종필90 ▲황성수96

◇農科大學

▲나찬희77 ▲박종삼99 ▲이창규89  
▲장형수78

◇文理科大學

▲장호식64

◇美術大學

▲김현지92 ▲배기열96 ▲주성준94  
▲최충식89

◇法科大學

▲김정용96

◇師範大學

▲김광인75 ▲박평식95 ▲조대훈93

▲최종학84

◇商科大學

▲연제성60

◇藥學大學

▲김규호72

◇音樂大學

▲강병항91 ▲배석원96 ▲설경아81  
▲정미연81

◇醫科大學

▲최종식00

◇大學院

▲석규진82

◇司法大學院

▲전도영70

◇行政大學院

▲홍성훈96

◇環境大學院

▲김정국92 ▲김종일86

◇최고산업전략과정

▲최정규21

◇해양정책최고과정

▲김경철2

## 동문의 소리

## 이것이 친일 청산 위한 바른 길

張東萬(61년 文理大卒)재미 자유기고가



과거에의 회귀 집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되어야 한다. 역사는 진실대로 기술하되 그 죄과는 덮어두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역사를 거울삼아 오늘날 한국적 상황이 만들어 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술한 반민족 반국가 행위들을 우리 민중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규탄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때 그 때 이를 가치없이 처형해 청산하자. 그리해서 이제부터라도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움으로써,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은 하나 같이 모두 몰락하는가 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자손들은 거개가 평평거리며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사회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잘못된 역사의 악순환을 우리 민중들의 손으로 끊자.

이 길만이 이제 뒤늦게나마 친일 청산을 참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 2만여 명을 처형 투옥 처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80년대 「깨끗한 손」 작전 때 부정 부패한 공무원 기업가 2백여 명을 투옥 시키고, 그 중 20여 명은 자살 또는 처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두 경우, 단죄 대상이 모두 반민족 또는 부정 부패 행각을 저지른 그 당사자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역사가 바로 서으려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건 그들을 처단 단죄했어야 했다. 그리해

### 역사는 진실대로 기술하되 그 죄과는 덮어두기로 하자

서 민족 정기를 바로 잡았어야 했다. 허나, 그 때 우리 조상들은 또 한번 역사에 뉘를 범해 친일 청산은 有耶無耶되고 말았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이제, 국회 진보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족정

기모임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7백8명)을 새로 작성 공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명단에는 지금까지 독립 운동 또는 민족 지도자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역사는 바로 쓰여져야 하고 또 바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진실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당사자들 모두가 이미 땅 속에 묻혀 있는 이제, 그 이름을 새삼 거명하고 그 행각을 규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 것인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 봉사정신 갖춘 사회 리더 필요

黃錫泉(82년 保大院卒)(주)한국시드 영업부분 사장



### 모교 출신들이 객관적·양심적인 지성·능력 발휘하길

고 그 집단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모교 출신들이 제일 많은 비율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날짜인식 오류와 관련된 각종 전자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재난을 크게 걱정했던 것이 기억난다. 심지어 21세기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을 전후로 해서 첨단 전자 장비로 무장한(?) 항공기의 운항도 취소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의 지나친 기우였음이 입증되었다.

나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인간의 그 복잡하고 오묘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처세와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공허해질 때가 있다. 특히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 중에서도 지금과 같은 사회의 불안정과 혼란의 원인을 생각해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역할에 의문을 갖는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그룹은 대부분 엘리트라고 불리는 지식집단이다. 그리

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 나라가 지금처럼 되기까지 모교 출신들의 역할이 막중하였음을 부인할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현상을 돌이켜 볼 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그룹인 정치가, 기업가들 중 자신의 이익과 안일을 위해 부정, 부패에 연루되고 가치관 왜곡을 조장하

며,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무리배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영화를 위해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들의 삶을 온통 망들려 하고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무리배 중에 내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의 리더그룹 중 모교 출신들이 좀더 객관적이고 양심적이면서도 엘리트적인 지성과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한껏 발휘하여 보람을 느끼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봉사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날을 크게 꿈꾸어 본다.

## 벽 없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朱垠宣(95년 社會大卒)국민연금연구센터 주임연구원



### 공해유발 산업으로 호흡기와 피부는 영망이 돼 간다

지난밤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창문 밖이 심상치 않다. 마치 노란색 필터를 끼운 것 같다. 봄이면 으레 2~3일 겪게 되는 그런 일이라니 하고 넘어가 보려 하지만 사무실 책상 앞에서 코와 입, 호흡기, 피부로 느껴지는 흠뻑이 낯설다.

『왜 하필 약속이 오늘인 거야』

투덜거리면서 걸어가는 길 위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피부과 앞을 나서는 어머니와 마주친다. 모래 바람을 맞으며 마스크를 쓰고 종종걸음을 치는 세 사

람의 모습이 안쓰럽다. 갑자기 목이 따끔따끔하다. 손으로 입을 가려본다. 이런 상태가 만약 조금 더 심하게, 조금 더 오래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된다면 걱정이다. 모래 속에는 중국 공업지대에서 날아온 중금속 성분도 잔뜩 섞여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산업화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었던 런던의 스모그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공포스러운 생각도 든다. 어쩌면 아까 본 아이들과 나도 기나긴 희생자 대열 속에 서있게 되는 건 아닐까?

마치 모두들 벽이 없는 거대한 감옥, 아니 우리를 둘러싼 공기 전체가 부술 수 없는 벽이 되어 있는 감옥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다.

공해유발 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전해버렸다는 「깨끗한 나라」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집단적인 정신질환을 유발시켰던 원진레이온 공장은 일본에서 수십년간 쓰던 것을 1960년대에 들여온 것이었는데, 이걸 또 중국에서 사가려고 했었던가? 그렇게 각국에서 싼 값에 사들여온 유해생산설비와

내 이웃이 쑥쑥 커가고 있다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해마다 황사가 몰려온다고 해도 꽃봉오리는 올라오고 아이들은 커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네나 우리나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의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만한 사회적인 통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척이나 불행한 일이다. 중국의 벤츠 소유자가 많아질수록 해마다 나의 목은 더 아파올 것이고, 중국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호흡기와 피부는 영망이 될 테니 말이다. 누런 바람 속에서 다가오는 불모성을 예감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가?

헤어날 길 없는 감옥 속의 죄수들 마냥 어젯밤 황사 속을 걸으며 나는 맘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살려줘!』

「깨끗한 나라」에서 건너온 공해 산업들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을까?